

월간 가든인 7월호

July 2015

Gardenin

특집
기사

여·름·속·으로 - 정원여행을 위한 식물의 소개



Gardenin Maintenance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정원의 다양한 열매
정원사의 일기 / 김시용
참여가 소통으로 이어지기는 꽃길가꾸기



Gardenin Plants

정원 속 (Genus) 보이네
혼성식재로 디자인 되는 공공정원
서복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가우라 Gaura

Gardenin Culture

Summer Colour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빛과 그림자
커뮤니티정원 벚꽃마을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유럽의 주택정원 I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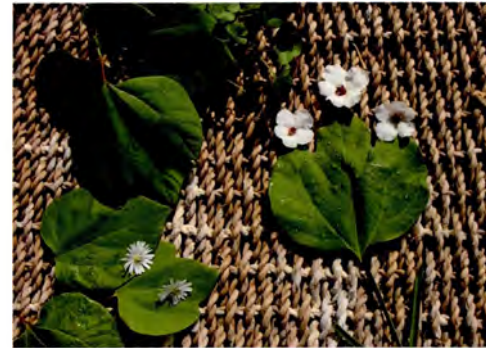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스 등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잡초 : 한국잔디

무로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이 사본에는 표기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이 표기사항 표시는 이 사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사본이 이미 있는 곳에는 표기사항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표기사항 표시는 이 사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표기사항 표시는 이 사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정원의 다양한 열매**
정원이나 베란다,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의 장식성은 자연에서 누리는 특권. 제철 과일도 즐기는 정원 속의 열매(Berry) & 토마토 등등의 매력과 미각으로 건강한 식탁도 가족에게 제공해보자
- 8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정원의 다양한 열매**
무더위 속 정원의 온도 와 습도의 조절은 실내 외를 통하여 같은 방법이다. 통풍이 매우 중요하고 종자 수확과 가을 파종할 식물, 병충해 예방 등이 필요하다
- 12 정원사의 일기 / 김시웅**
RHS 출신의 정원사 김시웅이 알려주는 정원의 식물과 채소 정원의 활용법으로 섞어짓기와 혼작등을 각각의 방법으로 쉽게 그림과 설명하는 정원사이자 농부의 노하우 제공
- 16 커뮤니티정원 연재3 / 충남 홍천군의 '꿈이 자라는 들'**
장애와 농업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 정원의 유기농업의 텃밭정원 이야기
- 20 참여가 소통으로 이어지는 꽃길가꾸기**
지역별 시민 참여의 인천 아라뱃길 정원문화체험은 어린이들의 체험으로 정원문화의 완성을 이어가는 현장 이야기

Gardenin Plants

- 22 정원 속 (Genus) 보이네**
식물의 분류 중 속(GENUS)을 하나씩 배워가며 향기로운 정원의 식물을 건강히 키워가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칼럼
- 26 Special Issue / 여름 속으로**
무더위, 장마를 맞이하면서 정원 속의 아름다운 꽃의 색상이나 싱그러움의 즐거움이 모든 이들에게 정원여행을 만나도록 추천한 식물의 소개
- 34 혼성식재로 디자인 되는 공공정원**
도시 속 대중의 색상 선호도가 변화해 가며, 공공정원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인 혼성식재는 개인 정원보다 더 뛰어나다...
- 38 서늘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눈앞들이 반짝이며 꽃 길을 걸어가면 이번 정원 속의 '하늘 국화이야기' 발자국으로...

- 40 관목시대 / 정원의 필수선택 Juniperus (향나무)**
정원 안에 다양한 관목을 준비하는 정원의 패턴이 변화하는데, 관목의 모양과 형태의 상록성은 이제 필수품목이 되어간다
- 42 광대수염 / 이명호**
꽃잎이 광대를 닮고, 꽃받침이 수염을 닮은 꽃
- 44 동부 Vigna Sinensis / 안완식**
- 46 여름철의 꽃들 / 윤평섭**

Gardenin Culture

- 48 Summer Colour / 오도**
여름철 화려한 일곱 빛깔 정원속 식물들의 배치를 전문 디자이너가 소개한다.
- 52 궁전의 플라워 가든 / 손관화**
오스트리아의 전통적 궁중 정원인 페트레 Parterre의 매력도 특이한 정원의 디자인형식
- 55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 최지현**
정원에는 표광 포인트라는 메인 요소가 필요하다. 식물이든 장식용 물건이든 주제에 맞는 요소를 살려주는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
- 58 집 안으로 들어온 야생화 정원 / 가든디자이너 김세경**
정원으로 야생화 정원을 꾸미는 코너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겨보는 박스 사이즈의 미니 정원속 이야기
- 62 2015 대한민국 정원문화 열풍의 중심에 서다 / 김홍렬**
- 63 빛과 그림자 / 최지현**
정원의 요소에서 빛과 그림자는 정원의 필수요소이고 식물의 식재에 주요 요인이지만,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오래 살펴본 후 느끼는 잔디 위에 나타나는 나무들의 그림의 모습을 즐겨보자
- 66 정원로의 여행 5 / 서수현**
일반 정원에 식물은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나갈까? 정원디자이너의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 하다
- 68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 정수조경. 정수진**
정원의 스타일종 배란다정원, 주택 정원등의 소용이용으로도 정원의 테마를 잡아가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 72 커뮤니티정원 벚꽃마을- 연재 2, 야생정원 / 송정섭박사 & 유경명부부 정원사**
경기도 화성의 벚꽃마을 커뮤니티 정원의 이웃과의 소통, 정원의 관리 및 open garden의 모습이 펼쳐지는 정원사 부부의 전문성을 들여보자.

- 76 속이 정원 / 우정아**
광기도 김포의 힐링공간으로 정원공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 79 DIY craft 벽장식 가드닝 / 우정아**

Gardenin Information

- 80 하반기 해외 단기 정원교육 소개**
- 81 도서소개 / 유럽의 주택정원 I**

Gardenin
Gardenin 월간 7월호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정원의 다양한 열매

여름철 열매들의 혜택

정원은 폭염의 더위 속이지만 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살피고 돌보기에 매우 매력이 있는 곳이다.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땅을 밟으며, 흙과 만나 대화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며 정원에서 선물의 열매를 만나며, 그 맛에 푹 빠진다면 아마도 돌보고 더위에 물을 주며 잡초를 뽑던 수고를 보상 받는 기분일 것이다. 정원을 걸으며 먹을 것을 얻는 기쁨상상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데, 여름철 만나는 정원에 식물을 가꾸며 꽃을 선호하지만 채소정원이나 과실수의 열매로 즐기는 기쁨은 미각을 통하여 맛으로 정원의 즐거움과 수고의 열매를 소중히 느낄 것이다.



붉은 색의 열매 베리 Berry

정원을 가꾸다 보면 무엇이든 물을 주면 자라는 것도 배우지만 한 떨기 꽃을 보기 위해 정성껏 물을 주며 지구 전체가 물을 얻는 것도 배울 수 있다. 물을 주며 식물에게 대화도 나누고, 나 자신과 세상도 그 말을 듣는다. 식물은 땅 위에서 편히 쉴 곳을 찾아 피고 있는 것이다. 햇빛, 물, 흙에서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얻느냐에 따라 마지막 열매를 판가름하곤 한다.

여름철 열매는 효능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느낌은 섬유소로 구성되나 열매에서도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 좋은 열매는 염증 및 급진적인 세포와 장기를 손상 시킬 수 있는 분자에 대한 당신의 신체를 보호 하는 항산화 능력을 소유하는 소중한 기능도 돕는 연구가 많이 소개되었다.



여름철 열매가 물에 주는 혜택

당신의 건강 향상 방법과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 여름의 열매 무엇을 공급하는지

떨기 strawberry : 한 컵의 양은 오렌지와 비교 한다면 매우 높은 염산을 공급한다.

블루베리 Blueberry : 블루빛 보라색과 블루 바이올렛은 약 20 종류의 안토시아닌을 포함하며, 다른 열매의 경우는 단지 3-4종류만 가지고 있다.

블랙베리 Blackberries, 램스베리 Raspberries, 오디 :

1일 한컵에서 1/3 컵의 양으로 8g에서 25g을 각각 섭취하면 좋다. 완전한 100% 과일쥬스를 갈아 마시고 육류나, 가공류 식품의 요리법에서 스스로 섭취를 해도 매우 좋다.

Cranberries 크랜베리 : 대장균 박테리아를 방지하여 요로 감염을 방지하지만 또한 자연Probiotic 위장지역에서 성장하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지원하고 소화 기능도 돕는다.



대체적으로 색상이 짙은 여름철 열매의 효능은 아래와 같다.

1. 심장의 건강을 증대하며
2. 활발한 산화, 노화방지 역할의 Antioxidants 함유
3. 암의 발병을 감소시켜줌
4. 체중감소의 효과
5.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며
6.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E처럼 시력감퇴를 최소화 시킴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 열매

육묘와 정식

지구상에는 300여종의 토마토가 있으며 연간 30여개의 새품종이 개발되고있다. 모양과 맛도 다양하고 요리에 따라 품종 선정이 중요하다. 우수한 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좋은 토마토묘를 정식이 필수. 좋은 토마토 묘는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짧습니다. 잎 색은 녹색이며 뿌리가 노화되지 않아야 한다. 병해충의 피해가 없이 건실하게 자란 묘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토마토 묘를 집에서 길러서 심기보다는 대부분 육묘장에서 45-60일 정도 기른 플러그 묘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마토 정식

토마토 정식 적기의 묘는 일반적으로 제 1화방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이다. 고온기에는 어린 묘를, 저온기에는 다소 성숙한 묘를 정식하는 것이 활착과 후기 생육에 도움이 된다. 정식 깊이는 육묘시 포트 윗부분과 지면이 같은 높이로 심습니다. 토마토는 7-9마디에 4-5개의 꽃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꽃송이, 즉 화방이 생기고, 잎이 3장 나올 때마다 화방이 하나씩 생긴다. 위쪽으로 갈수록 한 화방에 달리는 꽃수는 많아지지만 한 화방에 토마토를 4-5개만 착과시키고 나머지는 따주어야 토마토가 커지고 열매가 좋아진다.

재배관리

토마토 유인방법

토마토는 덩굴식물이므로 유인이 필요하며, 유인 방법은 크게 유인끈과 토마토 줄기를 집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과 토마토 줄기에 유인끈을 감아 유인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줄기에 유인끈을 감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은 토마토 줄기를 곧게 기를 수 있지만 수확 후 줄기를 제거할 때 끈을 제거하기가 번거롭고 흙이 들립니다. 이 때 집계를 이용해서 토마토가 자라나는 대로 유인끈에 고정시켜주면 아주 손쉽게 유인이 가능하며 나중에 토마토 수확이 끝나고 줄기를 제거하기도 쉽다. 유인 시기를 놓치면 줄기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제때에 유인을 해 주어야 한다.

Gardenin Tip

토마토 재배 기술

토마토는 영양이 풍부한 농산물로 수확한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주스나 케첩 등으로 가공해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토마토는 과채류 중에서 낮은 온도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여름의 혹서기를 피한다면 기술 보유 정도에 따라 축성재배, 반축성재배, 노지재배와 역제재배 작형까지 1년 내내 재배가능.



시간에 쫓긴 케온 정원의 텃밭 토마토가 청리후 깔끔하게 붉은 토마토의 열매를 기다려본다.



Q 토마토는 광합성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과실로 전류되어 자라고 있는 이유는?

A 토마토가 발육 이래 위의 두잎에서 동화작용을 한 이물질이 이 토마토를 움직여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수확을 하기에 1평은 심나 노화한 재배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정체되어 습도가 높아져 많은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온도관리

토마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은 낮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알맞은 온도만 유지해주면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겨울철 저온기에는 최저 12℃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온에 힘써야 하고, 여름철에는 25℃ 이상이 되면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



4. 수정방법

토마토의 수분은 인공수분과 수정벌을 이용한 수분을 한다. 인공수분은 한 화방에 보통 4-5개의 꽃이 피는 첫 번째 꽃이 피고 2일이 지난 후, 즉 세 번째 꽃이 피었을 때 오전 중에 실시한다.

5. 수분관리

어느 작물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토마토 재배시에는 적절한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하면 각종 비료의 흡수가 적어지면서 토마토의 생장과 결실이 불량하게 되며, 특히 석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석회 결핍증상인 배꼽썩음병이 발생해서 열매질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많으면 웃자라고 병이 많아지고 과실의 당도도 낮아진다.

토마토는 착과 후 45일경부터 붉게 착색이 된다. 다 익은 토마토를 늦게 따면 토마토가 물러져서 출하 중 타지기가 쉽기 때문에 제때에 수확해서 잘 선별한 후 출하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텃밭 토마토치즈 요리

베란다 텃밭에 지식없이 키우다 보니 늦어진 가지치기와 솎아주기 후 푸른 열매가 가득하나 토마토의 영양분은 더욱 높아 요리로 이어졌다.



1.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앞뒤로 구워주고

2. 준비한 버섯과 아스파라거스도 같은 방법으로 구운후



3. 토마토 위에 각종 치즈를 올려 먹으면 아주 이색적인 여름음식을 만나게 된다



4. 수확하는 기쁨과 식탁에서 즐기는 온 가족의 기쁨도 나누는 텃밭 속의 토마토 치즈요리



Gardenin Tip

순지르기란?

식물의 경우 Rhodsk dufark 지나치게 많으면 영양분이 부족하여 건실하게 자랄수 없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지를 줄여 주거나, 꽃과 열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생장점이 있는 새순을 잘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웃자람도 막을 수 있고, 영양생장을 촉진해 주어 꽃이나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순지르기는 '결넉파기', '순따지기' 등으로도 불린다.

참고사이트:

<http://swimming79.tistory.com/entry/방울토마토키우기>

Gardenin 정원사의

7월의 정원관리

일년 중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 중의 하나이며, 야외에 앉아서 정원을 만끽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속적으로 줄기 끝 단의 꽃을 꺾어주어서 보다 풍성하게 꽃이 보여질 수 있게 하며, 되도록 재활용수를 사용하여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에서 잘 번창하는 잡초를 호미로 제거해야 한다.



가을 크로커스(crocuses)

꽃

씨부리기와 심기

가을에 꽃이 피는 구근인 가을 크로커스(crocuses), 노란개상사화(Sternbergia), 아마릴리스(Amaryllis),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어떤 종류의 씨앗은 수확 후 바로 심는 것이 좋으며, 다른 종류의 씨앗은 특별한 기후 조건에서 휴면 상태를 깨어나는 것이 요구 된다 (고산 식물류). 언제 파종을 할지 모르겠다면, 나누어서 심어보면 된다. 예를 들면 수확 후 바로 심어 보던가, 겨울에 심어보던가, 봄에 심어보는 것이다.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화분용 식물의 가지치기를 하고 비료를 주어 새로운 성장을 유도하면, 지루해졌던 장식에 활력을 줄 수가 있으며, 제비고깔(delphiniums)과 제라늄(geraniums)이 첫 번째 만개 후 잘라주어서 두 번째 개화를 유도 할 수도 있다. 자른 후 비료를 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주기적으로 화단의 꽃이 시들면 잘라내어서 개화기간을 연장시키고, 달리아(dahlias)의 꽃이 크게 열리기 위해 꽃 봉오리를 따거나 시든 꽃을 잘라주면 된다. 장미의 꽃이 매력적으로 피어 있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수도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여름		
		6	7	8
01	관목 & 덩굴정리			
02	농사짓기(채소과일종자배아)			
03	퇴비주기			
04	화단관리			
05	원예 업무			
06	정원 도구(수리·유지 보수)			
07	접붙이기			
08	조경 경관 디자인			
09	물 배기(잡초제거)			
12	토양 분석 및 관리			
13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14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15	관수 공급			
20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1	충돌 관리 감독 (정원관리파트별)			
22	작업전 후 사진정리			
23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있다. 덩수룩하게 무리를 지어 자란 붓꽃(iris)의 뿌리 나누기를 하여 증식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지포 생장 형 식물 같은 고산식물을 패치로 활용하여 빈 공간에 옮겨 심고 마른 비료를 주어서 다시 잘 자랄 수 있게 유도해 본다.

증식

실내에 있거나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의 삽수를 따서 내년을 위해 준비를 하며, 석죽(Pinks)이나 카네이션(carnations)의 줄기가 늘어지면 휘묻이를 하거나 삽수를 통해서 증식을 한다. 증식은 깔끔하지 못하게 뭉쳐서 자란 외형을 좋게 할 수 있다.

일반관리

키가 큰 루핀(lupins)과 제비고깔 그리고 글라디올러스(gladiolus)의 지대가 지탱이 어려워지면 높은 지지대로 받쳐 주어야 하며,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을 잘 주고 액상 비료를 화분용 식물에게 주어야 한다. 특히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 늦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단 가상자리의 다년생 식물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비료를 개화직전에 주면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화단에 멀칭을 하여 수분 유지와 잡초 방지를 하면 많은 일거리를 줄 일 수 있다. 아주 두꺼운 멀칭을 5~7.5cm로 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다년생 잡초는 여름에 잘 자라므로 이 때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좋으며, 광범위한 지역에는 잡초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미리 준비하기

올해 추식 종자나 내년에 파종할 일년생 씨앗 종자의 수집이 시작되며, 특히 금자화(Calendula)와 양귀비(poppy) 그리고 니켈라(love-in-a-mist) 등이 좋다.

해충과 질병 검사

딱정벌레 유충은 몇 일 안에 백합과 식물의 잎을 다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백합과 식물을 잘 살펴야 하고, 바꾸어도 이 시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식용 식물인 충꽃풀(Coryopteris)과 바늘꽃(Fuchsia) 그리고 달리아(Dahlia)의 잎에 생겨난 작은 구멍이나 굽힘은 작은 곤충에 의한 피해가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어린 가지의 줄기와 잎에 진딧물이 생기는지 잘 관찰해야 된다. 건강해 보였던 클레마티스(clematis)가 갑자기 쓰러지면, 특히 큰 꽃을 피우는 품종일 경우, 클레마티스 마름병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며, 건조한 기후에서 흰가루병은 클레마티스와 장미(roses) 그리고 인동덩굴(Lonicera)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장미에 생긴 검은 반점과 파라칸타(Pyracantha)에 생긴 빨간 곰팡이를 주의하고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증상

수목과 관목



가지치기와 적응

고광나무(Philadelphus)와 병꽃나무(Weigela)같이 7월에 꽃이 피는 관목은 꽃이 진후 가지치기를 하며, 필요하면 낙엽성 목련(magnolia)의 가지치기를 같이 해준다. 빠르게 자라는 회양목인 레이랜드 삼나무(Leyland cypress)를 성장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잘라주어야 하고, 당굴식물이 자란 만큼 또 묶어주어야 한다.

증식

수국(Hydrangea) 그리고 고광나무 같은 관목의 속지삽을 가지고, 화분에 따른 비료와 함께 심으며, 실내에 놓거나 비닐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묶어준다. 클레마티스 또한 삽수를 통해서 증식을 할 수 있으며, 잎의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서 삽수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으름덩굴(Akebia)이나 목련(Magnolia)은 휘묻이 고취법을 사용해서 증식을 할 수 있다.

해충과 질병 검사

침엽수림의 갈색으로 변색된 잎은 진딧물에 의한 감염이 오래 전부터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검은 반점이 줄기 사이사이에 생기거나 꺾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있으면 명백히 감염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른 여름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이런 기미가 보



고추 흰가루병

이런, 침엽수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화양목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변색된 가지를 잘라주고 근접한 가지들을 한데 묶어서 빈 공간이 안 생기게 한다. 월계수(*Laurus nobilis*) 잎이 두꺼워 지거나 휘어지면, 해충(작지벌레, Scale insects)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정조다. 깔끔하게 잎의 가장자리가 원형으로 꺾였다면, 이런 명백히 가위벌에 의해서이며, 이는 그다지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장미류에서 나타나는 노랑고 문개진 잎은 흰가루병의 문제가 의심이 되고, 딱정벌레로부터 훼손된 인동류의 잎은 잘만 치료해주면 나올 수 있다.

날씨가 가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잔디를 깎아주어야 하고, 아주 더울 때는 이른 여름보다 잔디 킨를 더 높게 깎아주어야 한다. 이는 더운 날씨에 잔디가 마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봄에 비료를 한 주였으면 액상 비료를 올해의 마지막으로 주어야 하며 수용성 혹은 잡초의 잔해로 만든 비료가 효과적이다. 잔디밭이 갈색으로 변색이 된 부분이 있어도 비가오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며,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회복 시킬 수도 있다.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물을 줄 때, 유리 통을 놓고 유리 통에 물이 13mm 정도 차면 충분히 물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봄에 새로운 잔디를 깔았으면,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물을 주어야 한다.

Gardenin Tip

<문제해결>

노랗게 변색된 부분을 점검했을 때 선분홍색 가닥이 발견되면 이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토양의 질소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소성분의 비료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 개미에 의한 피해를 입은 수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깎을 때마다 보이는 개미집을 없애는 것이 좋다.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는 뿌리째 뽑아주던가, 아니면 비르는 제초를 사용해서 제거 할 수도 있다. 잔디를 깎을 때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가을에 어떤 변화를 취야 할지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Gardenin Tip

고취법(Air-layering) : 일반적으로 저취법에 비해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가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취문'이라고 하[지]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취목'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곧게 서 있는 나무의 가지에서 껍질을 등골게 벗겨낸 후, 충분히 습기가 있는 물이끼로 싼 후에 물기가 새지 않도록 다시 비닐로 싼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진 부분에 영양분이 모여서 뿌리가 다시 나므로, 이후 뿌리가 난 부분을 잘라내서 땅에 다시 심어서 키운다. 석류나 매화, 고무나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관엽식물에서는 꺾꽂이에 비해서 효율이 좋다. (두산백과)



늦은 여름에 잔디의 성장이 둔화되면, 잔디 킨를 높게 해서 깎아주어야 한다.

모뉴먼트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 시간을 유지하여 추석이 되는 가을까지의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다.



특징과 이점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락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잡초 발생후 뿐만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제이다. (묘소등지)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한국잔디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전비교

syngenta. 신원진 고지아(가)



과정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 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8월 19일 ~ 11월 18일 (예정)

* 하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리 87 (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 강 료: 25만원 (총액 65만원 중 경기도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자부담 25만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
-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
-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

영역 및 강의 과목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제1강 8월 19일	개강식		정원의 이해	
제2강 8월 26일			채소정원의 조성	
제3강 9월 2일			수목의 종류와 특성	
제4강 9월 9일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5강 9월 16일			정원계획과 설계	
제6강 9월 23일			실외정원 조성	
제7강 9월 30일			식재 및 관수	
제8강 10월 7일			정원답사	
제9강 10월 14일			수목의 전지정정	
제10강 10월 21일			식물의 비배 및 월동관리	
제11강 10월 28일			식물의 환경과 생리	
제12강 11월 4일			병해충 관리	
제13강 11월 11일			실내정원 조성	
제14강 11월 18일			식물번식	수료식



가든조아

문의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관상정원(Ornamental Garden)

7월에 여름에 무렵기는 하지만 이때 초본이나 목본류의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키 큰 목본류의 꽃을 보기 쉽지 않지만 백합나무나, 배롱나무 등의 꽃 또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초본류는 요즘 종묘회사에서 많은 종류의 초화들을 취급하고 있고 원예종의 식물이 많이 보급되어 식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 졌다.

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주제정원을 만들기가 쉽다. 예를 들어 암석원, 수생식물원, 야생화원, 관목원, 과수정원, 색깔별 화단 등이 있다. 식물의 주제 정원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심었을 때 그 장소(흙이 어떤 종류인지 잘 알아야 된다)에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식물의 관상적인 부분만을 보고 심는다면 식물이 그 장소에 살아가기에 힘들고 관상적인 효과도 생각보다 훨씬 덜하게 된다. 어떤 식물이 어떤 장소에 잘 사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지식은 책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경험과 자연 속에 있는 식물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웃집이나 식물원 수목원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에 얻은 경험이 보편타당하다고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은 경험이 어떤 환경조건에서 얻어졌는지를 잘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조금 과장하면 백사람의 농부에게 백가지 농사짓는 방법이 있듯이 백 사람의 정원사에게 백가지의 식물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정원사 내지는 식물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아야 하겠지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고 찾고 관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스스로 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때 진정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7월에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

초본
풀

식물	보통명	꽃색
<i>Achillea millefolium</i> 'Lilac Beauty'	서양쐐풀 '라일락 뷰티'	자주색
<i>Agapanthus</i> 'Mabel Grey'	아가판투스 '마블 그레이'	파랑색
<i>Alstroemeria</i> 'Friendship'	알스트로메리아 '프렌드십'	연노랑, 노랑바탕에 갈색줄무늬
<i>Aster amellus</i> 'Framfieldii'	아젤루스 아스터 '프람필드'	연파랑색
<i>Crocsmia</i> 'Lucifer'	에기범부채 '루시퍼'	빨강색
<i>Hemerocallis fulva</i> 'Flore Pleno'	왕원추리 '플로레 플레노'	주황색
<i>Nymphaea</i> 'Pygmaea Rubra'	수련 '피그마에아 루브라'	질은 분홍에서 빨강색

*Agapanthus* 'Mabel Grey'*Alstroemeria* 'Friendship'*Achillea millefolium* 'Lilac Beauty'*Aster amellus* 'Framfieldii'*Crocsmia* 'Lucifer'*Hemerocallis fulva* 'Flore Pleno'*Nymphaea* 'Pygmaea Rubra'

7월에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

목본
나무

식물	보통명	꽃색
<i>Aesculus parviflora</i>	파르비플로라칠엽수	흰색
<i>Buddleja davidii</i> 'Malvern Blue'	부들레야 '말버른 블루'	진파랑색
<i>Clematis</i> 'Perle d'Azur'	클레마티스 '펄 다주르'	연파랑색
<i>Hibiscus syriacus</i> 'William R Smith'	무궁화 '윌리엄 알 스미쓰'	흰색
<i>Hydrangea arborescens</i> 'Annabelle'	미국수국 '아나벨레'	흰색
<i>Liriodendron tulipifera</i> 'Fastigiatum'	백합나무 '파스티기아툼'	연노랑
<i>Rosa</i> 'Winchester Cathedral'	장미 '윈체스터 카씨드럴'	흰색

*Buddleja davidii* 'Malvern Blue'*Clematis* 'Perle d'Azur'*Aesculus parviflora**Hibiscus syriacus* 'William R Smith'*Hydrangea arborescens* 'Annabelle'*Liriodendron tulipifera* 'Fastigiatum'*Rosa* 'Winchester Cathedral'

텃밭정원(Vegetable Garden)

섞어짓기(혼식(混植), 혼작(混作),
Companion Planting)사례

가지 + 파슬리

- 가지가 파슬리를 갇아 먹는 해충인 호랑나비의 접근을 막아 준다.
- 가지는 빛을 좋아하고, 파슬리는 그늘을 좋아해서 서로의 품질을 좋게 한다.
- 가지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파슬리는 표토층 가까이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의 경쟁이 생기지 않는다.





차이브 + 양상추 + 장미

- 채소의 생육과 풍미를 좋게 한다.
- 장미의 흑성병을 방제 해 준다.



호박 + 대파

- 대파가 토마토의 병해충을 방제 해 준다.



토마토 + 부추

보가만 해도 식육이 되는 토마토 그리고 한번 심으면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부추. 토마토 역시 봄에 파종을 해서 손질하기만 잘 해 주면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부추와 같이 심으면 오래오래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토마토는 밭에 아주심기 4시간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주심기 후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뿌리의 활력이 좋아진다. 부추를 심을 때는 뿌리 부분이 토마토 뿌리쪽 아래로 들어가게 심어 준다. 토마토 뿌리와 부추의 뿌리가 잘 교차하면서 자라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포인트이다.



피망 + 바질

- 서로의 생육을 도와주고 풍미를 좋게 한다.
- 파리나 모기가 날라들지 못하게 하며, 온실 흰가루병을 막아준다.



토마토 + 케모마일

- 채소의 생육을 도와주고, 풍미를 좋게 한다.
- 사마귀나 칠성무당벌레 등의 천적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준다.
- 배추흰나비나 진딧물 예방에 효과가 있다.

《혼식의 효과》

부추의 뿌리에 번식하는 김항균(박출테리아 글라지움)이 토마토의 병원균을 막아주고, 같은 장소에서 해마다 심을 수 있는 연작이 가능하게 된다. 또 혼식함으로써 토양중의 미생물이 다양화되어 풍성하게 된다.

돌려짓기(윤작(輪作))

어떤 채소든지 같은 밭에 같은 종류나 같은 과의 채소를 연속해서 심지 않는다. 잇달아 같은 곳에 같은 작물을 심으면 땅 속 양분이 부족해지고, 병이나 해충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줄어 들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채소의 종류를 계속 바꾸어 기르는 돌려짓기(윤작)이다.

돌려짓기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뿌리채소(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등), 열매채소(토마토, 호박, 가지, 오이, 콩 등), 잎채소(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등 자라는 성질이 다른 채소들끼리 분류해서 해마다 돌려짓는 것이다. 또는 채소의 과별로 나누어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덧밭정원이 좁으면 돌려짓기를 해도 연작 피해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그럴 땐 퇴비나 녹비작물에 도움을 청해보자. 퇴비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곡류를 포함한 겨울철 녹비작물(보리, 호밀 등)과 콩과식물(자운영, 헤어리베치 등)은 그들이 지닌 넓은 뿌리조직과 질소고정 능력으로 흙 속에 자연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어도 장해가 잘 생기지 않는 채소

호박, 옥수수, 당근, 무, 양파, 고구마, 마늘, 파, 생강, 머위

이어지면 장해가 생기는 채소

토마토, 가지, 오이, 상추,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매주콩

작물의 이어짓기 내성



품질이 좋아지는 작물

목화, 담배, 당근, 양파, 호박



이어짓기 해가 적은 작물

벼, 조, 수수, 옥수수, 연근, 순무, 부추, 딸기, 양배추



1년 쉬어야 하는 작물

생강, 파, 쪽파, 시금치, 콩



2년 쉬어야 하는 작물

감자, 오이, 땅콩



3년 쉬어야 하는 작물

토란, 쪽파, 강낭콩, 토마토



5년 쉬어야 하는 작물

수박, 가지, 완두콩, 배추, 우엉

10년 쉬어야 하는 작물: 인삼

마을정원 연재 3

(Community Garden) 연재1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꿈이 자라는 뜰'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간판이래를 통과하면 아이들의 정원이 펼쳐진다.

장애와 농업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꿈이 자라는 뜰)

충남 홍천군 홍동면

홍동면에 있는 사골 마을을 걷다보면 길가에 150여 평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면 단위에 위치한 팔괘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 걸음으로 10~15분이면 오고 갈 수 있다.

2011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이 정원의 이름은 '꿈이 자라는 뜰'이다.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일일이 붓으로 색칠을 한 간판 아래로 통과하면 그늘막이 되는 파고라가 있고, 기둥을 따라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가 떨어져 있다. 작고 소소한 배려지만, 정원 일을 하다가 혹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장소가 된다. 10여 m의 파고라 앞으로 100여 평의 정원이 펼쳐진다. 향기가 나는 허브가 심겨져 있고, 나무틀상자로 만든 텃밭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6월의 정원 전경. 멀리 파고라가 보이고 텃밭과 허브정원 그리고 고등학교학생이 지은 휴장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제공 최문철)



마을교사와 중학교 특수학급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최문철)

꿈이 자라는 뜰

'꿈이 자라는 뜰'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농사일을 통해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 특수교사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교사가 되어 협력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직업학교나 산업노동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남기를 희망하며, 마을주민들과 함께 꽃을 가꾸고, 허브차를 만들고, 닭을 키워 계란을 생산하고,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무틀상자 5개를 1년 동안 관리하게 된다. 봄과 가을에는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아이들이 수확한 농산물과 허브를 이용해 요리도 해서 파티를 연다 (사진제공 최문철)



1년 중 허브를 수확하기 위해 하우스 안에서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 하우스 한쪽에는 농기구함과 타이틀과 의자를 준비해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안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허브수확을 할 때 아이들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나무로 틀을 만들어 주었다.



허브를 번식해서 마을에서 판매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



농기구를 쉽게 꺼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닭을 키워 계란을 생산해서 마을에 판매 한다. 닭과 토끼가 같이 자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정원 한편에 놓인 토끼 아저씨. 아이들은 분명 이 앞에서 한창을 놀고 갈 것이다.



농기구를 쉽게 꺼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태변기.

열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크기의 시설들이 정원 곳곳에 위치해 있다. 허브정원에는 사과 향을 풍기는 애플민트, 만병의 약사라고 불리는 케모마일,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라벤더 등이 심겨져 있고, 5월부터 잎을 따서 건조시킨 후 허브차를 만들어 판매한다. 아이들은 허브를 만지며 향기를 맡고, 차를 만들어 판매를 하면서 경제개념을 공부하게 된다.

유기농업으로도 텃밭정원이 풍성하다

텃밭에는 채소와 꽃을 같이 심어, 유기농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진딧물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한련화는 양배추나 배추 옆에 심어 주고, 메리골드는 부리채소 옆에 심어 부리혹충을 예방한다. 꽃과 채소가 같이 심겨진 텃밭에서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감성을 키우며 자라난다.

정원의 또 다른 한편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풀을 퇴비로 만들기 위한 퇴비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생태변기가 있어 텃밭에 다시 돌려주는 순환의 고리를 실천을 통해 공부하게 된다. 단지 키워서 먹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배설물과 풀들이 퇴비가 되어 흙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성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특 성

1.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해에는 일년생 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4. 연출 시공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법면 3호, 4호)



금호아파트



라테나



울산 태화강



예코랜드



미안리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 연재1



글 사진 / 양지선

참여가 소통으로 이어지는 꽃길 가꾸기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체험

어린이 손으로 가꾼 꽃밭

신록이 무성한 5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꽃길을 가꾸고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재 지역은 18km의 아라뱃길 구간 중 가족소품마당 약 300m, 바람소리언덕 약200m에 걸쳐 다양한 다년생 숙근초를 식재하였다. 약 10일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사리 손을 모아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초등학생들은 아라뱃길 인근 초등학교들로 부모님과 함께 아라뱃길에 방문하여 오늘 심은 꽃들을 관찰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준비된 식재구에 꽃을 심고 있다]

체험활동과 정원문화의 융합

서울시를 비롯하여 꽃과 정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꽃심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에서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벵베나, 페츨니아, 토레니아 등의 일년생 식물 심는데 반해 이번 체험에서는 지속적인 경관조성에 유리한 다년생 수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체험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복잡한 정원디자인을 구현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수종의 키를 고려한 계단형으로 디자인하였다. 총 9가지 수종으로 키에 따라 3종씩 혼합하였는데 식재 수종으로는 A타입(후록스, 코레우리 하디크림, 비비추), B타입(속근사루비아, 코레우리 텡커벨, 고리풀 블루), C타입(백합 고성종, 토틀, 코레우리 골드스타)을 선정하였다. 단순한 꽃 심어보기 체험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열어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전문업체, 그리고 시민

작년부터 시작한 '아라가꿈이' 행사는 주관업체인 워터웨이플러스에서 자체 운영하였다가 올해 우리꽃과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유동이 많아 관람효과가 높은 부지 선정부터 식재 공간의 면정리와 비료준비까지 체험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철저했다. 또한 수종선정과 실행에 전문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된다. 일회성 짙은 행사가 아닌 준비와 참여, 결과와 유지관리까지 가능한 것은 기관가 업체가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라는 바탕이 있었고 참여 어린이와 시민 또한 우리가 가꾼 꽃밭에 대한 보람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꽃밭 조성으로 인하여 꽃의 관람과 무질서한 시민들의 공원 이용과 무분별한 캠핑기구 설치가 지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꽃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제공해 자연을 사랑하는 정서를 심어주고, 지역사회와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아라뱃길사업본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K-water 윤보훈 아라뱃길사업본부장은 “아라가꿈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미래세대가 친환경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아라뱃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는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라가꿈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031-999-7854, 워터웨이플러스)로 가능하다.



[식재를 완료하고 다같이 물을 주는 모습]



[프로그램 교육 자료]





팜파스그라스 속(Genus Cortaderia)

팜파스그라스는 우리나라에는 자연하지 않지만 대형의 억새처럼 자라는 식물로 매우 사랑 받는 이름이다. 상록성 혹은 반 상록성의 다년생으로 23 종이 포함된 속으로 뉴질랜드, 뉴기니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볼가 근처 혹은 초지에 서식한다. 이들은 억새고 남작하고 가느다란 선모양의 잎을 가지는데 간혹 연한 청록색의 거칠고 납카로운 가장자리를 지닌 잎을 가진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깃털 같은 은색, 금색 혹은 연한 분홍색의 원추형의 꽃이 일품이다. 뾰족한 조밀한 풀쭈를 형성한다(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식물체에 있으며, 간혹 암수가 같이 있기도 함). 암꽃 꽃대는 길고 밑부분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깃털은 그대로 혹은 건조시켜서 꽃꽂이에 사용한다. 화단과 뒷부분에 기르거나 혹은 독립된 포인종으로 기른다. 서리에 대한 내한성을 지니고 있으나 겨울을 나지 못한다. 때문에 대량화분에 심어 겨울이 되면 온실로 옮겨 관리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정원에 위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밝은 양지를 좋아하고 키는 2-3m로 자리므로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기른다. 전전도의 줄기를 잘라서 정리하고 매년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달카로운 잎 면면을 조심하면서 마른 잎을 정리한다. 증식은 봄에 기온이 13-18℃일 때 파종을 한다. 봄에 분주를 한다.



현호색 속(Genus Corydalis)

현호색 속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섬유모양의 혹은 다육성 뿌리의 일년생 그리고 이년생 식물과 알뿌리 구근을 지니거나 지하경을 갖는 다년생 식물 등 300여 종의 속한 식물이다. 대부분은 초목이고 소수는 상록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북반부 지방의 많은 초원과 암석 산형지나 산악지대에 넓은 서식지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3개의 복합체로 된 세갈래 혹은 3개로 이루어지거나 우상엽에서 3개의 우상엽으로 되고 가끔 끝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대생 혹은 호생의 줄기 잎이 있다. 작은 잎은 잘 나누어져 있으며 암치식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통모양처럼 생긴 꽃은 총상꽃차례의 말단 혹은 옆에서 나며, 일반적으로 잎의 위에서 피고 4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고, 뒤집어진 외부의 한쌍의 꽃과 수술과 암술대를 감싸는 내부의 쌍이 있다. 해를 좋아하는 식물은 양성정원이나 고산 식물원에 적합하고 그늘을 선호하는 식물은 암석정원 혹은 삼림지 정원 혹은 관목 화단 밑에서 기른다. 몇 종은 여름에 휴면에 들어 일반적인 추식구근식물과 같이 취급하면 된다. 과도한 겨울철 수분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대체로 내한성은 강하다.



현호색 속 식물의 재배에 있어 다양한 재배 방법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다.

1. 암지 혹은 그늘진 활엽수 아래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기른다. 간혹 자유롭게 스스로 번식이 잘됨.
2. 밝은 태양 아래 배수가 매우 잘 되고 적절히 비옥한 토양의 암석정원에서 기른다. 부분적인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다.
3. 그늘이 약간 있고 적절히 비옥한 토양에 부식토가 많고 축축하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기른다.
4. 암석가든 용 상자나 고산식물원에 동일한 비율의 인공토, 퇴비 그리고 화산석을 혼합한 혼합토에 기른다. 과도한 물주는 오해하지 않는다.

증식은 주로 넓은 상자에 성숙하지마자 파종을 하면 가을 혹은 이듬해 봄에 발아하는데 발아세가 좋지 않다. 다년생의 종류는 봄에 꽃이 피는 종은 가을에 분주를 하고 여름에 꽃이 피는 종은 봄에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 달팽이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진디와 응애는 온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코스모스 속(Genus Cosmos)

코스모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잘 맞는 식물이다. 주로 가을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식물이다. 코스모스는 직립하는 것부터 퍼지고 자유롭게 가지를 치는 일년생 그리고 다년생 식물의 25종의 속으로 미국, 중남미의 관목을 형성하는 곳이나 초지에서 발견된다. 잎은 대생의 쌍이며, 가늘고 열편이 있다. 코스모스 종의 재배종은 꽃이 크고 눈에 잘 띄는 붉은 진홍색, 분홍색 혹은 흰색 등의 1년생과 노랑 혹은 주황의 색을 가지는 노랑코스모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다년생 초코렛코스모스가 도입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색깔은 검붉은 초코렛색에 꽃향기는 화이트초

코렛의 달콤함까지 풍기는 매우 아름다운 품종이다. 사실 우리꽃에서 이 품종을 개발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서리에 내한성이 있는 것에서 약한 것까지 있거나 국내에서는 1년생으로 취급된다. 다만 종자를 맺지 않아 삼목에 의한 번식을 주로 한다. 재배는 적절히 비옥하고 축축하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밝은 태양 아래서 기른다. 개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시든 꽃을 제거하고 종자를 받기 위한 일년생 종을 남겨둔다. *C. atrosanguineus*는 가을에 덩굴을 해주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첫 서리가 오기 전 뿌리를 캐내어 겨울 동안 온실에 보관을 하는데 물기가 거의 없는 피트모스 등에 보관한다. 증식은 봄 중순 혹은 늦봄에 원 자리에 기온이 16℃일 때 파종을 한다. *C. atrosanguineus* 이른봄 기저부의 순을 꺾듯이하면 뿌리를 내린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 민달팽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홍자단 속(Genus Cotoneaster)

200종 이상의 낙엽성, 반상록성, 상록성 관목과 교목이 속해 있다.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북부 온대 지역의 산림지역과 바위지대에서 자란다. 자라는 창 모양, 좁은 타원형, 넓은 달걀 모양, 또는 둥근 모양의 잎이 호생으로 자란다. 꽃은 반침 점시모양에서 얇은 컵 모양이고, 색깔은 하얀색에서 짙은 분홍색까지 나타난다. 봄에서 여름까지 하나의 꽃이 취산꽃차례로 피어난다. 구형, 난형 혹은 달걀 모양의 열매가 맺힌다. 관목화단에서 자리거나 울타리나 망을 타고 자란다. 일부 종은 벽을 타고 오르기에 알맞다. 키가 작은 종은 락 기둥에 적합하다.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많은 종들은 바닥을 덮기에 알맞다. 가지를 늘어뜨리는 자연목을 감고 올라가는 종도 있다. 종자를 먹을 경우 약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내한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약한 종류도 있어 종류마다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 재배는 적당히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재배한다. 대부분 건조한 토양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낙엽성 종은 햇빛이 충분히 드는 장소가 적합하다. 중간 크기 혹은 큰 크기의 상록수들은 별이 드는 장소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장소에서 잘 자라지만 - 10℃ (14℉) 이하의 기온이 장기간 지속되는 장소에서 재배할 때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키가 작은 상록수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낙엽성 종은 봄에 가지치기를 하고 상록성 종은 어느 때도 가능하다. 울타리나 벽을 타는 종들은 정기적으로 한여름 혹은 늦여름에 지는 꽃이나 가장 끝에 달린 열매 이후 가지를 잘라준다. 새로 자란 가지가 열매를 가릴 경우 초기에 가벽에 다시 정돈해준다. 증식은 열매가 성숙해지면 가을에 냉상 화분에 종자를 파종한다. 일부 종은 무성 생식을 하기도 하고 종자를 만들기도 한다. 늦여름에 상록성, 반상록성 종은 약간 굳은 줄기를 잘라 삼목을 하고, 낙엽 종은 초여름에는 녹자를 삼목하면 뿌리를 잘 내린다. 병충해는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애기범부채속 (Genus Crocosmia)

덩불을 형성하는 다년생 식물의 7종의 속으로 남아프리카의 초지에 자생한다. 줄기는 직립하고 가는다란 창모양 잎은 선형이거나 가끔 주름이 있으며 주로 중간 녹색에서 갈색 빛이 도는 녹색으로 길이는 60-100cm이다. 이들은 여름 중순에서 늦여름 사이에 피는 갈매기 모양의 작은 꽃이 꽃대에 나란히 달리는 모습으로 사랑 받는다. 관목 화단의 가장자리나 초본성 화단의 덩불에서 자란다. 주로 남부지방의 도로가 등지에 심으면 효과적이나 내한성이 약해 분화 용으로 적합하다. 재배는 8-10cm깊이로 봄에 적절히 비옥하고 부식토가 많고 축축하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는다. 양지 혹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벽 근처에 심고 서리가 오래기는 지역에서는 뿌리덮개를 해준다. 봄에 얼어있는 뿌리를 분주해 생기를 유지한다. 증식은 주로 이른 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응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Special Issue

여름·속·으로

가나간 가뭄속에 비소식이 마냥 기다러지는 7월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다. 뜨거운 햇살아래 더위속에서 목마름을 뒤로하고 우리의 정원에서는 여지없이 여름꽃들이 한창이다. 더위에 짜증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정원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며 가꾸는 재미에 다시한번 시간가는 줄 모르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우리의 정원을 시원하게 장식해줄 정원식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여러분들도 7월의 정원식물들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속으로의 여행을.....

개량후룩스

6월말부터 꽃봉오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7월로 들어서며 포도송이같은 큰꽃무리가 활짝 만개되어 화려한 수를 놓는다. 품종이 다양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7월말경 꽃이 질때쯤 꽃대를 잘라주면 다시한번 꽃을 볼 수 있는 장기개화 정원식물이다.



레드후드

백설

분홍심

오렌지

파라다이스

스위트피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유럽의 정원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원용 일년생 덩굴식물이다. 사진과 같이 지지대로 고정하여 자라게 하면 되고 색상별로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꽃도 아름답지만 향기는 그 이상으로 좋은 식물이다. 꽃이 아름다워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포복성으로 활용해도 좋다.



리아트리스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꽃방망이다. 일반적으로 꽃이 아래부터 위쪽으로 피어오르는 반면 리아트리스는 반대로 꽃대의 위쪽부터 꽃이 피어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라색이 대부분 유통되었으나 이제는 하얀색도 출시되어 구입할 수 있다. 구근형태로 다른 포기형 식물들과 혼성식재에도 매우 좋다.



보라



화이트

꽃백합

빨강, 주황, 노랑, 하양, 분홍 등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꽃이 여름을 수놓는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주로 분화용으로만 이용되었던 꽃백합이지만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정원용 식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관목 또는 다른 포기형 식물들과 혼성식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이다.



도라지 로세아

은은한 연자주빛의 도라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재배하는 도라지꽃도 아름답지만 너무 크게 자라 쓰러지기 십상이라 정원은 맞지 않다. 단지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식재한다면 예외이겠지만, 하지만 로세아 품종은 키가 크지 않고 대가 단단하여 쓰러짐이 없이 7월을 시원하게 맞이해줄 정원용 식물이다.



부처꽃답

쫓불형으로 시원하게 꽃을 피운다. 기존 야생의 부처꽃에 피해서 꽃대가 크고 풍성하여 더욱 화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풍성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품종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기도 하다. 한 지역에 군식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레우리 링

사진에서도 보듯이 꽃이 피기전에도 형태적으로 구형을 이루고 있어 그 자체적으로 관상가치가 있는 소재이다. 꽃이 피면 매우 화려한 정원을 장식해준다. 단독으로 군식해도 좋고 구형의 형태가 좋아 중간중간 포인트로 식재하고 키가 작은 식물들을 베이스로 식재해도 좋다.



골든링

루비링

풍접초

6월에 식재한 풍접초는 7월부터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면적이 넓은 곳에 지자체 등에서 행사용으로 이용해도 좋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넓은 면적에 왜성코스모스와 같이 혼성하여 식재하면 한계절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다.



채리



화이트



바이올렛

에키나

이제는 대표적인 정원식물로 자리잡은 소재로 한 여름을 시원하게 녹여주는 꽃이다. 큰 꽃과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품종도 다양하여 이들 품종만으로도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노랄



레인보우



스노우



핑크

절굿대(에키놉스)



시원한 블루톤 색상의 꽃이 공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색적인 여름꽃이다. 정원에 식물사이에 포인트로 혼성식재하면 좋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절화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원식물로도 매우 유망한 종류이다.



코레우리 텅커벨

작은 꽃이 매우 양중맞게 모여 피는 코레우리 품종으로 분화용, 정원용으로 좋은 꽃이다. 꽃이 많이 피고 꽃이 질때쯤 커팅해주면 다시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잎이 황금색인 품종은 잎 자체로도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기도 하다.



호스타

잎이 아름다운 종류로서 품종이 매우 다양하고 용지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이다. 다른 꽃들과 잘 어울리게 배치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 특히 잎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띄는 '이니스우드' 품종은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품종이다.





자연스러움이 곧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혼성식재로 디자인 되는 공공정원

3월, 봄이 시작되면 공공의 화단은 대부분 색색의 일년초 꽃으로 새단장을 한다. 팬지 또는 비올라 등이 주종을 이루면서 일정 구역별로 나누어서 식물을 식재하는 패턴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져 왔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여 봄 일년초 식물로 자연스럽게 혼성식재한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섞여 놓은 듯한 모습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디자인 되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어떤 디자인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다 준다. 혼성식재로 아름답게 디자인된 공공의 정원을 찾아가 보자.

I. 공공의 정원에 혼성식재를 도입하다.



한달후(4월 20일), 꽃이 거의 지는 단계(5월 28일)인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곁들이고자 한다.

구청앞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정형적인 3파트의 화단에 3월 20일, 일년초로 식재가 되었다. 소재는 비올라, 물망초, 마가렛, 오스테오스펠름, 마라고이테스, 하늘국화, 가우라베이비 등이 이용되었으며 원색보다는 하양, 보라, 분홍 등의 색상을 이용하여 파스텔톤 느낌을 연출하였다. 식재할 당시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 식재 후에는 바로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고 약 2주후부터 꽃이 피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지기 시작하여 3주후부터는 각 정원별로 각자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약 2개월간 아름다운 정원이 지속되었는데 각 화단별로 식재후(3월 20일),



한달후(4.20일)

II. 정원1, 구름위의 정원

먼저 중앙에 키가 위로 자라는 가우라 베이비를 식재하여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화이트가 중심이 되는 컨셉으로 식재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얀색의 마가렛과 오스테오스펠름이 자연스럽게 반복 식재되었고 그 사이사이에 분홍색의 마라고이테스가 포인트로 들어가 마치 하얀꽃속에서 등불을 밝힌 듯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전체적으로 순백의 정갈한 느낌속에서 알맞은 포인트로 단조롭지 않은 경관을 펼쳐보인다. 마치 깨끗한 파란하늘에 한점 떠다니는 구름같은 아늑한 느낌에 오르는 초코파이 속의 마시멜로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한 입 베어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일까.



식재직후(3.20일)



교체시기(5.28)



한달후(4.20일)

III. 정원2, 설레임의 정원

첫 화단과 마찬가지로 가우라베이비를 식재하고 그 주위로 아이슬란드양귀비로 키가 높은 식물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베이스식물로 북색의 비올라, 분홍의 마라고이테스, 하얀의 마가렛, 오스테오스펠름으로 혼성식재 하였다. 이번에는 거의 같은 비율로 세가지 색상을 전체적으로 혼성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양이다. 첫 번째 화단처럼 하양이 주가 아니지만 반드시 하양이 뒷받침의 역할을 해주어야 분홍과 노랑의 색상을 돋보이게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연스러운 정원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식재 후 시간이 지나 꽃이 만개되면서 마치 설레임으로 하얀 얼굴에 분홍빛 홍조를 띄는 모습이 연상되는 정원의 모습이다.



식재직후(3.20일)



교체시기(5.28)



IV. 정원3, 만남의 정원

어찌보면 이 정원도 하양의 느낌이 강해보인다. 하지만 첫 번째 정원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 블루와 하양이 반반씩 섞인, 그래서 서로의 색감이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정원이 탄생되었다. 블루톤의 비올라, 하늘국화, 물망초 그리고 하양의 마가렛, 마라고이데스, 그 두가지 색감이 만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낸다. 그 만남이 더 없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행복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식재직후(3.20일)



교체시기(5. 28)

V.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직은 유럽의 화훼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정원을 즐기고 가꾸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 반면 아직도 우리의 정원조성기법은 많이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많은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턱없이 모자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성된 정원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물론 조성하고 난뒤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망가지는 정원도 부지기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정원조성에 있어 디자인은 더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경관을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디자인의 힘이다. 그만큼 앞으로는 민간정원이든, 공공정원이든 전문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과 함께하는

지금은 정원시대!

정원의 시공과 현장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제는 정원이 대세!

정원 조성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실험해온 우리꽃에서 정원 시공, 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스파르타식 현장교육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는 물론 미래의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 나갈 박공영 사단의 핵심으로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지원하세요.

모집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0일

모집인원 : 2~3명

모집조건 : 조경, 원예, 농업관련 학과 전공자 / 농고 졸업생 우대

교육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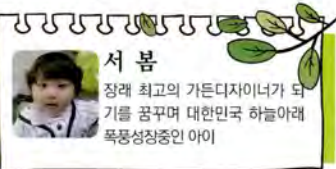
인턴기간 : 3개월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우리씨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신청방법 : 이력서 제출 (메일주소: jhseo@uriseed.com)

문의는 031. 634. 7990 으로 해주세요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식 하늘국화



황금빛이 반짝반짝 '금방식'이 신기하네요.

올해 상반기 새롭게 선보이며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정원식물 하늘국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형태적으로 키가 작고 꽃도 작게 피지만 그 꽃이 한데 모여피면서 아주 앙증맞은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비결을 살펴보면 일단 4월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색이 다양하여 원하는 수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고요. 특히 '금방식'이라는 품종은 일색이 황금색으로 꽃이 없는 상태에서도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좋은 품종이라 누구나 처음보자마자 사랑의 눈길을 주는 품종입니다.

키가 작고 꽃이 풍성해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고요, 우리의 정원에 앞 라인쪽에 식재하거나, 일년초 화단에 앞라인 또는 베이스 식물로 혼성식재하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색이 다양하여 이들만으로 혼성식재해도 좋은 앙상בל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재배백에 채소와 함께 하늘국화를 심어봅니다.



금방식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건조가 길어지면 관수를 해주면 좋고요, 일시적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꽃이 일시에 쳐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꽃대를 커팅해준 뒤 비료를 뿌려주고 관수를 해주면 다시 2주 후부터 꽃대를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지는 물론 어느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그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집에서 작은 포트에 길러도 되고 큰 화분에 모아 심어서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고 긴 화분에 다른 꽃들과 채소와 함께 길러도 좋습니다. 더 늦기전에 정원의 빈자리를 하늘국화로 채워주세요. 대만족하실 거예요.

바로 옆 페이지에서 하늘국화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국화 현장 따라가기



도로화단에 분국분국
볼품있게 심겨져
있네요, 금방식!

골프장 환경이후
화단에 여러종류가
혼성식재 되어있습니다



나뭇아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네요!



울진로 피복지
화단에 식재 직후
모습입니다.



남산공원 매점소 입구 작은 화단에 풍기좋기!

산책로 주변 화단에도
관상성이
뛰어나습니다.



이름 붙 식재한
근동엽 사탕 화분에
다른 꽃은 지고
하늘국화만 서생생.



관목
시대

정원의 필수선택 Juniperus(향나무)

정원에서 앞으로 관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되어진 바 있다. 그만큼 관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다양성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의미에서 '가든인'에서는 다양한 관목소재를 소개하고 그 이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 첫 시간으로 상록성의 대표적인 관목인 Juniperus(향나무)계통의 소재를 몇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품종은 다양하다!

우리는 대부분 눈향이라는 소재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분류해보면 자라는 형태적으로나 잎의 색깔에 따라서 많은 품종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포복성으로 자라는 눈향계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하브눈향이 있다. 그리고 잎이 작고 매우 조밀한 좁은향이 있으며 황금색 잎을 띄는 골든카펫향 등이 있다. 모두 땅으로

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경사면, 돌메지용, 라인용으로 알맞은 소재이다. 또한 겨울상록성이 필요한곳에 직립성의 상록관목을 심고 이 종류들을 베이스로 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포복성으로 자라는 듯하지만 자라면서 원줄기가 서서 자라는 종류로 골드스타향, 블루카펫향 등이 있다. 골드스타향은 황금색 잎의 질감이 뛰어난 수종으로 특히 끝부분에 새순이 오를 때 더욱 아름답다.



골드키센향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황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루카펫향 또한 블루톤의 질감이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위 품종 모두 잎의 질감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돌메지용 뿐만 아니라 암석가든의 돌과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그리고 도심의 띠녹지, 중앙분리대 등에 상록성을 원할 때 이러한 질감이 좋은 품종을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직립성으로 자라는 종류들은 직선의 느낌이 주는 정갈함과 고급스러움으로 앞으로 매우 유망한 품종이다. 대표적으로 스카이로켓향이 있다. 정원의 포인트용으로 좋고 열식으로 울타리용 소재로 이용하면 더할나위 없이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직립성 소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카이로켓향은 지금도 꽤 인기 있는 수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품종도 다양하게 재배, 유통되어 소재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종류로 블루애로우향, 블루엔젤향 등이 있다.



돌메지, 암석가든, 울타리용, 도로중앙분리대, 띠녹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록성의 질감이 좋은 관목들은 그 쓰임새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낙엽수 사이에서 포인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다. 또 많은 종류들이 돌메지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암석가든에도 잘 어울린다. 특히 도심의 띠녹지, 도로중앙분리대 등에 전면일률적인 회양목 또는 철쭉 일변도에서 이러한 질감이 좋은 상록성 향나무 품종들을 현장에 맞게 군식하거나 몇품종을 이용하여 혼합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부분 병해충에도 강하고 생육이 강건하여 관리면에서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한 지역을 모두 이러한 수종으로 조성한다면 사계절 내내 상록성으로 계절감이 없는 점이 있어 사이사이에 튼립, 꽃백합 등의 구근을 이용하거나 중간중간에 붓꽃레아 같은 꽃이 좋은 관목을 섞어서 조성한다면 더욱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스카이로켓향



골드키센향



골드스타향



블루애로우향



블루카펫향

꽃잎이 광대를 닮고, 꽃받침이 수염을 닮은 꽃

“광대수염”



광대수염(접사)



광대수염(군락)



광대수염(잎)

꽃잎과 꽃받침의 상세 관찰

광대는 흔히 수염을 달고 춤을 추며 묘기를 부리는 사람일까? 꽃의 이름에서 우리는 외관상의 모양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꽃을 관찰할 때에는 구조부터 세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꽃잎의 상순이 모자 처처럼 앞으로 굽어서 광대를 연상케 하고, 꽃받침이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5개로 갈라져서 수염을 연상케 하므로 이 꽃은 '광대수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광대수염

광대수염의 특징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산지의 숲속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높이 60cm 정도이며, 네모지고 털이 약간 있다.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있으며, 달걀 모양이다. 잎 끝이 뾰족하고 밑은 둥글거나 심장 모양이며, 길이 5~10cm, 나비 3~8cm이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주름이 진다.

광대수염의 꽃과 열매

5~6월에 연한 붉은빛을 띤 자주색 또는 흰색 꽃이 마주난 잎겨드랑이에 5~6개씩 총총으로 달리 핀다. 꽃받침은 길이 13~18mm로 5갈래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털이 난다. 화관은 윗입술 꽃잎이 앞으로 굽어 말리고 흰 털이 있으며, 아랫입술꽃잎은 밑으로 넓게 퍼진다. 4개의 수술 중 2개가 길고 암술이 1개 있다. 열매는 분과로 도란형이고 3개의 능선이 있으며, 길이 3mm 정도이고 7~8월에 익는다.



섬광대수염(군락)



왜광대수염(전경)



왜광대수염(접사)



섬광대수염



섬광대수염(잎)



섬광대수염(접사)



왜광대수염(군집)



왜광대수염(잎)



호광대수염(군집)



호광대수염

광대수염 종류들의 분류

꿀풀과의 광대수염 종류들도 꽤 많고 다양한 편이다. 이들의 잎은 모두 마주나며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뚜렷한 구분 점은 털의 유무와 꽃의 색깔 및 잎의 모양이라 할 수 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광대수염은 꽃색이 흰색이라고는 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 우윳빛처럼 부연 색이며 짧은 털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섬광대수염과 왜광대수염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광대수염은 눈이 부실 정도로 흰 순백색의 꽃잎을 자랑하며, 몸에 털이 거의 없고 꽃이 크게 피는 것이 특징이다. 이름 앞에 접두사로 '섬'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울릉도의 식물이 갖는 특징을 섬광대수염도 그대로 갖는 식물이라 할 수 있다. 왜광대수염은 잎이 아주 길고 끝이 뾰족하며 꽃이 백색으로 피는 것이 특징이다. 몸에 털은 있으나 아주 짧고 양이 적은 편이어서 알핏 보기에는 털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줄기와 잎이 말갭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특별한 장소에서 자라는 모습을 드물게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본 사진은 2010년 7월 몽골 야생화 탐사 시에 운이 좋게 발견되어 촬영된 사진이다.

호광대수염의 분류와 특징

백두산을 비롯한 북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호광대수염은 키에 비해 꽃이 유난히 작게 피는 느낌이 들며, 꽃색은 부연 우윳빛갈 바탕에 분홍색의 얼룩무늬가 꽃잎 끝부분에 살짝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광대수염은 다른 종류들에 비해 잎자루가 길고 난상 피침형이며 끝이 길게 꼬리처럼 뾰족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꽃잎은 연한 홍자색이며 뒷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총총으로 모여달리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자라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광대수염 외에는, 각기 독특한 장소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귀하게 발견이 된 셈이다.

용도 및 자생지 분포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다. 자궁질환·비뇨기질환·월경불순에 꽃을 달여 먹으면 효험이 있다. 기본종은 풀 전체에 털이 많고 잎이 긴 달걀 모양으로 강원도 이북 지방에서 많이 자란다. 전라남도·경상남도·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지에 분포한다.





밥맛을 돋구어주는

동부

Vigna Sinensis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울타리에 심은 동부 텃밭에서 풋 동부를 따서 넣어 지은 찰밥은 시골이 아니면 맛보지 못하는 진미이다. 동부는 역시 식량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맛을 취하기 위해 심어 왔던 작물이다. 그래서 밭 한 피기를 모두 파종하기보다는 발독이나 울타리에 물결에 심어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부는 품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텃밭성이어서 밭을 이용하기보다는 울타리나 발독이 제격인 것이다. 늘 아낙네들 손달기 쉬운 곳에 심어 두면 동부는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풋것으로 이용하고, 고투리가 누렇게 되어 단단하게 여문 것은 따로 수확 해 두었다가 강낭콩이나 팔과 같이 떡고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작물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국을 거쳐 일본에 들어간 것이 9세기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보다 훨씬 먼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어머니들의 손에서 가까이는 수백 또 멀게는 수천 년을 함께 한 동부는 그 오랜 시간만큼이나 친근감이 가는 우리의 토종이다.

동부는 줄기의 전체에 털이 없으며 잎은 3장으로 이루어진 3출복엽이며 6-8월에 노랑색깔을 띤 엷은 녹색의 나비같이 생긴 예쁜 꽃이 핀다. 흔히 동부를 광쟁이/광저기/양대라고도 하는데, 양대는 경북 지방에서 강낭콩을 부르는 사투리다.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지방종이 존재한다.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에서 '어금니동부'라고 불리는 품종도 전북지방에서는 '굴뱅이동부'라고 부른다. 흔히 넓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부는 어금니동부, 검은동부, 흰동부, 붉은동부 등이다. 연한 회색 바탕에 작은 진한회색 점이 박힌 개파리동부와 어금니동부 보다 작지만 어금니동부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어금니동부 등도 중 북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금니동부와 색깔이 비슷하면서도 모양이 조금 구부정한 굴뱅이동부는 완주 지방, 충청도의 괴산, 경기도 등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연한 갈색 바탕에 자주무늬가 들어간 평동부와,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곡성의 알몸



검은어금니동부



갓끈동부



개파리동부-강화 화도면 장순(제79)



검은어금니동부-완주 사비면 장금(제64)



곡성 검은동부



굴뱅이동부-괴산



평동부-곡성 북서면 신명(제62)



줄동부



줄동부-곡성



붉은동부-괴산



바꼭동부-강화군 봉곡면 이곡(제62)



사치동부-완주시 비봉면 오금(제73)



삼색동부-곡성군 일곡면 길거(제75)



알몸동부-곡성



어금니동부와 검은어금니동부-완주시 비봉면 장금(제64)



어금니동부-완주시 화산면 송곡(제72)



자주어금니동부-곡성 명산리



작은어금니동부-완



진동부-강화군 고동면 전대(제77)



흰동부-완주사비면 장금(제64)



동부



동부텃밭에 고투리가 달린 모습



수확기의 갓끈동부 고투리



완인흰동부

동부, 강화지방의 바꼭동부 등은 드물게 보인다.

갓끈동부는 꼬투리가 길어서 모양이 선비의 갓 끈을 연상시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꼬투리 길이는 대략 30~40cm 정도이다. 꽃 색은 중앙이 노란색을 띄는 연한 투명한 자주색이며, 꽃은 아침에 피어 한낮이면 다물어진다. 잎을 씹으로 먹거나 장아찌를 담그기도 한다. 씨가 약간 길고 작으며 고투리가 덜 여물었을 때 껍질째 먹는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보통동부보다 2-3배 많아 영양이 풍부하고 껍질 채 이용하므로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좋다. 옛날 의사인 본초 강목에도 위장을 보하고 위장을 튼튼히 하며 오장을 고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당뇨, 설사, 요실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부의 조상인 새동부》

1994년 수원시의 서호 제방면에서 야생종인 새동부가 집단으로 발견되었고, 서해안 토종수집 길에서도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의 길 뚝에서도 그 집단이 발견되었다.

검은색 바탕에 흰 눈을 하고 있는 새까만 새동부는 동부의 크기가 녹두알 정도로 연한 하늘색의 꽃을 피우고, 고투리가 가늘고 작지만 하늘을 향해 거의 곧게 서 있으며 잎은 보통의 동부와 꼭 같이 생겼다. 동리 아주머니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길가나 밭에서 저절로 나는데 맛이 없어서 먹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름도 돌동부나 개돌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동부재배법》

- 재배토양 : 동부는 거의 땅을 가리지 않으나 산성이 강하지 않고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잘된다. 울타리나 발독에 심는다.
- 파종시기 : 5월 상순이 적기이나 6월 상순에 파종하여도 수량이 적지만 수확은 가능하다.
- 시비 : 콩과 식물이므로 비료를 적게 주어도 되지만 콩보다는 많이 주어야 한다. 특히 갓끈동부는 지속적으로 거름을 조금씩 준다. 파종 전에 파종을 할 곳에 잘 썩은 퇴비를 넣고 삽으로 파서 흙과 섞어 준다.
- 재식거리 : 발독이나 울타리에 50~70cm에 2~3립씩 뿌린다. 특히 갓끈동부는 지주를 세워주어야 수확 등 관리가 편리하다.
- 거 두 기 : 7월중하순 경부터 고투리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따서 풋동부로 이용하고 씨앗으로 쓸 것은 10월 중하순에 고투리가 갈변하고 마를 때 따서 잘 말려 둔다. 동부 시앗은 잘 마르지 않으면 바구미 등 곤충의 피해가 심하므로 잘 말려서 메트병에 담아서 보관해야 한다.

MONTHLY YOON'S GREEN NEWS

여름철의 꽃들



Koeleria paniculata 모감주나무

우리나라 기후는 모든 꽃들이 70%가 4~6월에 모두 피어 그 후에는 별로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꽃들이 많지 않다. 7월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 재배종으로 볼만한 꽃들이 목본류 중에는 무궁화를 비롯하여 모감주나무나 배롱나무, 능소화가 대표적이며 초본류로는 도라지와 맥문동, 접시꽃, 백합류의 꽃들과 칸나, 봉황초, 나팔꽃, 플럭스, 백일홍, 맨드라미, 봉선화, 루드베키아, 부용, 코레오프시스 등이 있다. 7월이 되면 우리나라 기후 상 장마철이 계속되므로 장맛비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를 대비해서 일 년에 3~4번을 갈아 심어야 하는데 여러 번 심기가 어렵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해야 경제적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봄부터 초화류를 잘 선택해서 식재해야 장마철에도 아름다운 화단을 감상하면서 가을까지 무난히 감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화류를 들면 메리골드를 들수 있으며 관엽식물로는 콜레우스(Coleus)를 들수 있다. 이 두 식물은 장맛비에 강하여 꽃과 관엽이 잘 어울려 감상하게 하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게 한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메리골드가 진황색이거나 붉은색계통의 더운색이기 때문에 연황색이 나타나 크림색이 나는 메리골드품종을 식재하면 좋겠고 콜레우스 또한 신선한 색감이 나는 관엽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Lagerstroemia indica 배롱나무



Hibiscus syriacus Shichisai 무궁화 사치사이



Hibiscus mutabilis 부용

속근초화로는 루드베키아(Rudbeckia hirta)와 금계국(Coreopsis grandiflora), 샤프스타이지(Leucanthemum × superbum)가 있는데 이들 또한 루드베키아와 금계국은 진황색이라서 나서 더운 색깔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스러움을 느낄 분더러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연노랑색이나 크림색이 나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다. 목본류로는 7월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 꽃이 피는 것이 있는데 모감주나무를 들 수 있다. 긴 장마동안에는 꽃이 계속 피었다가 장마가 끝날 무렵 꽃이 지고 파랗 같은 열매가 맺는다. 열매가 맺으면 녹색의 초롱등을 달아 놓은 듯 아름답다. 해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꽃이 피고 끝날 때면 장마가 끝난다하여 장마나무라고도 부른다. 배롱나무는 본래 목백일홍이라고 불렸으며 나무에서 꽃이 100일 동안 핀다하여 목백일홍이라고 불렀으나 일년초에 백일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있기에 혼돈이 있을까봐 지방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을 채택하여 배롱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배롱나무의 이름의 유래는 백일홍을 빠르게 부르다보니 배롱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 백일홍을 잘못 전달되어 배롱나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어떻게 간에 꽃이 귀한 기간 동안 피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조경용수로 여름 꽃이 되



Plectranthus scutellarioides Combo 콜레우스 컴보



Plectranthus scutellarioides Freckles 콜레우스 프레클스



Tagetes patula Safari Yellow 프렌치메리골드 '사파리 옐로우'



Coreopsis grandiflora 금계국



Hibiscus mutabilis 부용



Rudbeckia hirta Prairie Sun 루드베키아 히트라 프레이어 썬



Rudbeckia Irish Eyes

었다. 그러나 대전이남지역에서만 재배되었던 식물로 최근에 와서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되어 정원수로 재배되고 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마음 놓고 식재할 수 있는 식물은 아닌 것 같다. 배롱나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난대지방과 온대지방 사이에서 원산지로 자생하고 있는 낙엽덩굴성 관화식물인 능소화 역시 붉은 주황색꽃이 나팔모양 피어 장관을 이룬다. 또한 우리나라 나라꽃 무궁화를 빼놓을 수 없는 여름 꽃 중에 하나이다. 개화기를 보면 자본홍색과 흰색에 붉은 단심이 들어있는 이 꽃은 아침에 개화되어 저녁에 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이 꽃을 보노라면 마음이 맑고 싱그러운 청신한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한다. 무궁화의 원예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400여 품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꽃 중에 하나이다. 꽃색도 빨강색, 분홍색, 자분홍색, 흰색, 푸른색, 보라색부터 홑꽃과 겹꽃, 반 겹꽃이 있으며 대륜종(지름이 25cm)부터 중륜종(8~12cm), 소륜종(5cm)이 있다. 이상과 같은 꽃들은 우리나라의 여름꽃을 대표 할 만한 꽃들 중에 하나라고 보겠다.

COLOUR IN THE GARDEN



Beningbrough Hall n Gardens

SUMMER COLOUR

7월이 되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풀과 나무는 무성해지고 정원의 곳곳에서는 노랑고, 빨강계 그리고 주황색의 꽃들이 핀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흰색과 파란색의 꽃들을 심어 시원함을 정원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꽃과 칼라를 볼 수 있는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정원으로 나가자. 눈으로는 꽃의 색을 관찰하고, 귀로는 새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는 꽃과 잎의 촉감을 느끼며 여름 정원의 썸머칼라(Summer Colour)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 도

품목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Nymans Garden)

일곱 색깔 무지개 색을 모두 담고 있는 여름 정원

정원에 심겨지는 꽃과 나무들은 원예종이 많기도 하지만, 그들 나름의 태어난 고향(원산지)이 있다. 러시아의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는 들꽃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경우는 사계절 중 한때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다음 세대를 남기게 된다. 지구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자라는 수많은 식물들은 사계절 중에 여름의 한때를 거치는 식물이 가장 많을 것이다. 너무 춥지 않은 조건에서 많은 씨앗을 남길 수 있는 계절을 택해 번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칼라 또한 다양하다.



Nymans Garden



Hampton Court Flower Show

트로피컬(열대의)한 칼라로 매력을 더하는 썸머 칼라

여름정원에 대표적인 칼라는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일 것이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거리는 온통 메리골드로 장식된다. 노랑과 주황색이 많으며 꽃이 피는 시기도 길어서 화단이나 화분에 주로 심는다. 메리골드 이외에 열대지방이 원산인 칸나가 있다. 꽃은 흰색, 주황색, 빨간색이 있으며, 최근에는 잎이 구리색 또는 구리색에 빨간색이 들어간 잎을 가진 원예종이 있다. 년출하면서도 당당한 자태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마치, 열대 우림 속에 있는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만 연출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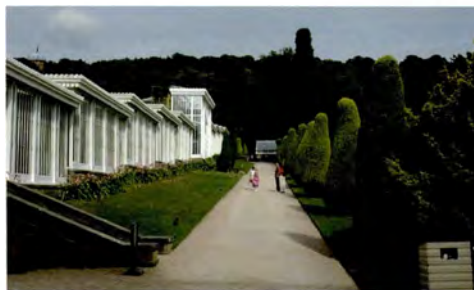
초록색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계절 씬머

초록빛이 더욱 짙어지는 여름이 되면, 정원은 초록의 앞들로 풍성해 진다. 초록의 잔디와 울타리가 온갖 색깔들을 받쳐주면서, 각각의 색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 간다. 초록색은 모든 색과 어울리는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초록이 가지고 있는 색들만 해도 다양한데 그 다양함을 잘 조화시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라데이션이 완성된다. 정원 곳곳을 장식하는 토피아리와 웅장한 나무들 그리고 생울타리의 단정함은 녹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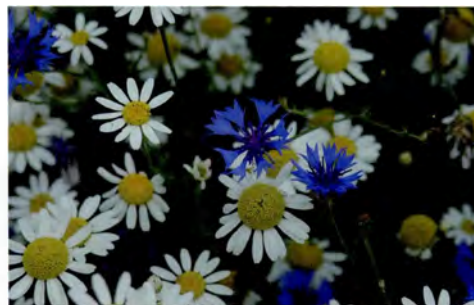
Great Dixter



Chatsworth



West Dean Garden



Wild flower at Organic Apple Wisley Garden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는 화이트 and 블루칼라

정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역시 화단이다. 화단을 색깔별로 나눠서 식재 계획을 세워 보면 계절 마다 다가오는 이미지와 느낌이 다르다. 특히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흰색과 파랑색 꽃을 화단에 심어 주면 체감 온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얀 눈을 연상하게 하는 흰색과 시원한 물을 연상하게 하는 파란색은 어느 계절에 상관없이 신선하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오스트리아 궁전의 플라워 가든



오스트리아 툴른(Tulln)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를 가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왕 간 값에 유명 정원 목록의 정원 몇 개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모두 궁전의 정원이었다. 궁전의 정원은 규모가 크고 화려해 볼거리로는 훌륭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너무 동떨어져 감흥을 못 받을 때도 있었으나 예술성이 뛰어난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손관화교수 천안연임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카페트 문양의 플라워가든

비인의 벨베데레(Belvedere) 궁전과 쇤브른(Schonbrunn) 궁전, 잘츠부르크의 미라벨(Mirabell) 궁전과 헬브룬(Hellbrunn) 궁전의 정원을 둘러보았는데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도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수와 연못, 풀 등의 물의 요소가 필수적이고 헬브룬 궁전의 정원과 같이 물을 주제로 전체 정원이 조성된 궁전도 있었다. 또 유럽의 정원에 일반적인 카페트 문양 같은 플라워 가든은 물론이고 잔디밭에 덩굴식물의 줄기가 뻗어나가는 듯한 당초무늬로 꽃을 심은 플라워 가든이 색깔로 보였다.



유럽의 매듭정원

유럽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경우 카페트 문양처럼 보이는 플라워 가든을 매듭정원(knot garden) 또는 빠테르(parterre)라고 한다. 매듭정원은 사각형 틀 내에 매듭 장식의 형태로 다양한 방향성 식물과 식용 허브들을 심어 정형적으로 디자인된 정원이다. 매듭정원은 확실한 정원의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1533~1603)때인데 초기에는 단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였고 최근의 대부분 매듭 정원은 회양목으로 가장자리를 만든다. 회양목의 잎은 상처를 입으면 달콤한 향을 낸다고 한다. 회양목 경계로 둘러싸인 공간과 공간 사이의 길은 자갈을 깔아 준다. 르네상스 시기의 대부분 매듭정원은 사각형으로 구획되어 있어 작은 정원은 한 구획, 큰 정원은 6-8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



Parterre Garden 바떼르정원

매듭정원은 원래 회양목으로 경계를 하지 않아 회양목으로 경계를 한 매듭정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떼르(parterre)라고 한다. 바떼르는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만들어진 화단으로 구성된 정형적 정원으로 대부분 대칭적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자갈로 된 통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데 화단은 돌이나 생울타리로 경계를 만들고 꽃 없이도 만들어진다. 경계용 관목은 회양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여 회양목 경계 내부에 여러 가지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회양목으로만 무늬를 내기도 한다. 프랑스의 바떼르는 15세기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에서 유래되었고 매듭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더 세련되고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면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유럽 여러 나라의 바떼르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궁전의 플라워 가든에는 서양잔디로 배경을 주고 그 위에 당초무늬를 만들어 무늬만큼 잔디 없는 식재 공간을 만들어 여러 가지 초화류를 심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였다. 몇 가지 종류의 초화류 중 흰색, 분홍, 빨강의 꽃베고니아가 주종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ce)는 세 가지 색의 꽃이 있고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므로 교체하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색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단에 이용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화단용으로 이용하는데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해 출하하므로 처음 노지 화단에 식재하면 적응할 때까지 햇볕에 잎과 꽃이 타는 증상을 보여 초기에 보기 싫은 경우가 있다.

꽃베고니아 외 헬리오트로프, 백묘국, 노랑코스모스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바떼르나 매듭정원을 화문화단, 자수정원, 모전화단, 양탄자화단, 무늬화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플라워가든을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는 용어라 원어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IV. 포컬 포인트 (Focal Point)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사진, 위즐리 가든 (2013, 영국)]

이번 달에 소개 할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정원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이다. 정원에서의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할 수 있는 재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찌보면 단조로운 수 있는 정원에 악센트를 주어 눈에 띄는 재미와 그와 대비되는 잔잔한 재미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정원에서 포컬포인트의 요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조각상이다. 지난 연재에서도 언급되었던 식물의 부드러운 질감과 조각상(석재)의 단단한 질감의 대비로인해 조각상이 더욱 눈에 띄어서이다. 정원에서의 조각품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며 이는 그 아티스트의 작품을 돋보이면서도 정원의 아름다움도 배가시킨다. 사진1은 위즐리 가든의 모습인데 양 옆은 부드러운 초화 화단이고 잔디 길 정면 언덕에 거대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많은 수의 포컬 포인트 조각품은 정원의 센터에 놓여 확실한 포인트를 준다. 사진2의 정원의 영국 런던 인근의 Ham House 정원이 다. 원추형의 토피어리던 주목이 포말한 정원에 잘 정렬이 된 정원이 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목이 마주치는 정 가운데에 조각을 설치하여 사람이 정원으로 들어서면 어느 곳에서나 조각품에 눈길이 가도록 했다. 사진 3은 윈스터 처칠의 집으로도 알려진 차트웰(Charwell) 정원이다. 여러여리한 색의 라벤더와 램즈이어를 바쳐주는 것은 짙은 녹색의 생 울타리와 정면의 포컬포인트로 쓰인 조각품이다. 이 또한 포말한 레이아웃의 정가운데에 놓여있다. 사진4도 마찬가지로 길목의 가운데에 작은 포컬포인트인 버드 바스(Bird bath: 새가 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곳)를 세워 여러 방향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2. 포말한 정원의 정 가운데의 조각품에 눈이 간다. Ham House (2013, 영국)]



[사진3. 짙은 녹색의 생 울타리와 조각품이 중심을 잡아준다. Chartwell (2013, 영국)]



[사진4. 위줄리 정원의 포컬포인트로 쓰인 버드바스(Bird Bath) (2013, 영국)]

조각품 외에 포컬 포인트로 쓰이는 요소는 다양하다. 사진 5. 는 영국 리젠츠파크에 놓인 분수대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 놓여있어 관람객의 이목을 끈다. 사진 6. 과 7은 영국은 이포드 매너 (Iford manor)의 정원으로 사진 6은 돌담 앞의 화려한 꽃이 심긴 화분으로 포컬 포인트를 만들었다. 또한 사진 7은 녹색으로 가득 찬 정원에 꽃이 심긴 화분으로 색으로써의 포컬 포인트를 확실히 잡았다. 색이 있는 벤치 또한 정원의 포컬 포인트로 이용 가능하다. 사진 8. 은 영국 덴만스 (Denmans) 정원이다. 녹색의 정원에 파란색의 목재 벤치를 이용하여 정원에 생기를 더했다.



[사진5. 리젠츠 파크 (2013, 영국)]



[사진6. 이포드 매너, Iford Manor (2013, 영국)]



[사진7. 이포드 매너, Iford Manor (2013, 영국)]

정원 장식품뿐만 아니라 정원의 주인공인 식물로 포컬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가장 손쉽게 포포인트를 표현하는 것은 색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고, 크기, 질감을 달리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사진9. 첼시 플라워쇼 쇼가든에서는 토피어리 상록수를 이용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사진 10과 같이 식물만 있는 화단에서 형태(Form)가 다른 식물도 포인트식물로 이용가능하다. 여기 하이드홀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주변 식물과 확연히 다른 팜 파스 그라스를 이용했다. 또한 사진11과 같이 꽃과 잎이 독립적으로 쓰기 아름다운 나무를 포인트로 쓰기도 한다. 11번 사진은 스탠다드 로즈로써 화단에 포인트로 쓰기 좋다.



[사진8. 덴만스가든, Denmans Garden (2013, 영국)]



[사진9. 첼시 플라워쇼 쇼가든 (2013, 영국)]



[사진10. RHS 하이드홀 (2013, 영국)]



[사진11. 헤스터군 (2013, 영국)]

어쩌면 조금은 평범할지 모르는 우리 집 정원에 한두 가지의 포인트를 주면 훨씬 활기차고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 될 것이다. 위의 다양한 예를 우리 집 정원에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마케다의 정원〉
가든 디자이너, 김세경
<http://blog.naver.com/makedagarden>



미니 박스 가든 -

집 안으로 들어온 야생화 정원

가든디자이너 김세경의 미니 정원코너- 와인
박스를 활용한 DIY 미니 정원



정원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및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마당이 딸린 주택이나 테라스가 있는 저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마당도 테라스도 없는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마당이 있었고 화려한 정원이나 소박한 대문간에나 꽃이 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좁은 땅 덩어리에 인구는 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무수히 들어서면서,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마당이 딸린 주택이란 먼 나라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 현실이다. 우린 정원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남겨진 건 좁은 베란다이다 보니 자연스레 실내 식물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야생화 정원에 대한 관심은 로망으로만 남게 되었다.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야생화 정원을 주택 생활자들을 위한 옵션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 주택 생활자들의 가드닝 문화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외에서 도시 생활자들의 가드닝 문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쉬운 형태를 꼽으라면 단연 나무 박스를 이용한 미니 가든 miniature garden을 들 수 있겠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미니 가든을 야생화들로 채움으로써 공동 주택 생활자들에게 야생화 가드닝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니 정원용 박스를 만들때 유의할 점 1.2 (박스사이즈 50 cm x 33 cm x 18 cm)



미니 야생화 가든을 만들 때 첫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배수와 방습 문제의 해결이다. 팔레트나 과일 박스의 경우 바닥을 이루는 판자들 사이에 배수용 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와인 박스의 경우에는 사진에서와 같이 구멍을 내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습을 위해서는 7~9회의 투영 락카 스프레이가 필요하다. 락카 스프레이는 에나멜 스프레이와는 달리 끈적거림이 없이 여러 겹의 커버막을 형성하여 방수, 방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9회 정도의 투영 락카 스프레이를 했더라도 박스에 비닐 커버링을 해 줄 경우 화초에 물을 줄 때 박스가 직접적으로 물에 닿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판자 틈이나 배수 구멍을 통해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아주는 것이 좋다.



거의 완벽한 수준의 미니정원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식재의 선택과 그에 알맞은 흙과 마사의 배합 비율이다. 미니 정원에 심어질 야생화들은 반드시 같은 토질에서 성장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즉 건조지에서 성장하는 화초와 습지에서 성장하는 화초가 함께 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가든을 디자인 할 때는 식물들이 심어질 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식물들을 심을 지 결정해야 하지만, 미니 정원을 만들 때는 반대로 어떤 식물들을 심을 것 인가를 결정한 후 그에 따라 흙과 마사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미니어추어 가든 Miniature Garden 은 종합예술 !!!

가드너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과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드너의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드너는 마당을 가질 수 없는 공동 주택 생활자들 또한 정원의 아름다움과 치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니 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니 가든 Mini Garden 은 미니어추어 가든 Miniature Garden 이다.



야생화 미니정원에 맞는 토양의 선택

또한 나무 박스라는 좁은 공간에 야생화들을 심는 것이니 만큼, 일반적인 가든 디자인에서 시도될 수 있는 모둠 심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종류의 야생화들을 한 포트씩만 배치하였을 때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의 식물들이 순차적으로 피고 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심을 때 각 식물의 성장 속도, 최대 성장 시 높이, 꽃의 크기 및 색깔, 질감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미니 정원에는 가드닝과 꽃꽂이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예술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MINI BOX GARDEN FLOWER LIST 식재



은쟁의 다리 *Thalictrum octaeofolium*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달개비 아이스 *Tradescantia reflexa*



도만금 *Gymnaster savatieri*



항설초



조이나 *Clematis alnifolia*



꿀물 *Prunella asiatica* Nakai, 미니리아재비 *Ranunculus japonicus*



풍지초 *Hakonechloa macra*



반디지치 *Lithospermum zollingeri* A. DC.



나비수국 *Schizophragma hydrangeoides*



년출알굴 *Vaccinium oxycoccus* L.



춘절국

[그림 1]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2015 대한민국 정원문화 열풍의 중심에서다



[그림 2]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 풍경



글/사진 김흥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공굴길라잡이 증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함께 불어오는 정원문화 열풍

계절의 여왕 5월과 6월이 지나고 어느덧 2015년 한 해도 중반으로 돌입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의 봄은 '정원문화' 열풍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매주 한번씩 정원문화에 관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산림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열렸다. 도시농업이 한때 녹색문화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이 받았다면, 이제는 정원 조성 및 운영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다크호스(dark horse)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7월호에서는 가든인 구독자 분들에게 관(官), 학(學), 연(研), 업(業) 구분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한민국 정원의 발전에 대한 열띤 논의와 정원 조성이라는 행위가 문화 활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전하고 싶다. 지난 4월 24일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시작한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부터 5월 15일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방안' 심포지엄에 이르는 모두 4개의 토론회와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짚어본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원과 관련하여 어떤 문화 행사를 접하고 관심 가져 볼만 한지 살펴보자.

정원문화조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1.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 4월 24일, 고양꽃전시관 2층 플라워 컨퍼런스룸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정원문화포럼이 주관하는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국가 정원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정원 산업의 범위와 사업종류 및 활성화 방안', '시민정원사 양성 및 시민강좌 활성화 방안'이라는 4개 세부 주제에 따라 각각 1명의 주제발표에 따른 3명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회를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 주제발표에서 산림청은 정원 식물, 정원 소품, 관수 등을 모듈화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이지가든(easy garden)'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2016년까지는 이지가든 모델을 개발하고, 2017년에는 상품화에 이어 2018년에 이지가든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했다. 세 번째 주제 '정원 산업의 범위와 사업의 종류'에서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는 정원서비스 상품 개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원 식물이나 소재들을 대여하는 서비스 사업, 정원 코디네이터, 정원 활동매니저, 정원 해설가 등 새로운 업종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주제에서 가장 핵심은 정원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문화로, 산업으로 융합되고 있어 결국 '정원문화는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라는 메시지가 정원 조성 확산과 발전의 근간이 된다.

2. 우리시대의 정원을 보는 다양한 시각 :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

경기도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사흘 뒤인 4월 27일, 서울에서는 2014년에 창립한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주최 및 주관으로 '우리시대의 정원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 성격은 이 시대의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국정원의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건축, 도시, 조경, 의학, 원예, 임학, 관광, 미술, 의상이라는 9개 분야에서 '정원'이라는 공동관심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자리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9개 분야 중 원예 분야에서는 정원을 주어진 공간에서 식물을 심고 기르고 가꾸며 수확하고 즐기는 활동과 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가드닝(gardening)'을 원어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정원 산업의 발전에 따른 원예 분야 미래는 향후 10년간 식물소재 산업은 1.5배 성장, 원예 교육과 프로그램 산업은 2배 이상의 성장과 연간 2만 여명의 가든인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원예 분야 종사자들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초화류·숙근초 도입 시험 연구와 초화류 종자 공급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 육성 및 지급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산 정원 자재 다양화와 가든센터 확대, 원예 교육



[그림 3]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이모저모



- 일시: 2015년 4월 24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고양꽃전시관 2층 플라워컨퍼런스룸
- 주최: 산림청
- 주관: (사)정원문화포럼



[그림 4] '우리시대의 정원을 보는 다양한 시각' 학술심포지엄 이모저모

-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주최/주관: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및 정원 기능 맞춤 프로그램 개발, 정원 산업 부문별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 모두 공감했다.

3. 정원문화의 오늘과 내일 : Garden Here Now & For The Future 한 국조경학회는 지난 5월 8일, 고양꽃전시관 2층 플라워컨퍼런스룸에서 제2회 정원문화 심포지엄 '정원문화의 오늘과 내일'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고 8명의 주제발표 와 5명의 토론자가 함께한 자리였다.

정원문화가 확산되기 위한 발표자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원 조성에 즐거움과 보 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원을 접할 때 식물 가꾸기와 관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플랜팅(planting)과 정원 자재 선택과 배치 디자인이 취 약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원교육이 어릴 때부 터 접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네 초·중·고등학교 입시와 시설 환경에서 는 정원 교육과 문화 형성을 갖춰 나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점이 한계 점이라고 꼽았다.

정원문화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라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 이 공공장소에서 먼저 정원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은 제 역 할을 톡톡히 해주고,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시민참여와 시민 정원사 육성에 힘써 나가야 한다.

4.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방안' 심포지엄

정원이라는 대상이 꼭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럽다면 농촌정원은? 농촌정원이라는 개념은 도시 정원문화의 열 품에 의해 농촌에도 급조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왜 정원이라?' 이라는 물음도 던 질 수 있고, '농촌정원은 집집마다 있는 앞마당이 곧 정원인 아니 나?'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사)한국정원디자인 학회는 무너져 버린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회복과 농촌마을의 새 로운 경제, 문화 활력에 동력이 되는 정원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농촌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작물을 활용하여 농촌마을 특산물 개발 과 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로 마을 정체성을 되찾는 선행 사례들 이 생겨났다. 금수강산 국토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농촌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지는 특화 경관조성이 곧 농촌마을 정원의 시발점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촌정원을 정원 문화의 본 고장인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농촌정원 모습처럼 만들 수 없다. 도시정원 조성과는 땅과 화초에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만 본래의 농촌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촉발하는 지점으로 청정한 산과 물이 흐르는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농촌정원이 될 수 있다.



[그림 5] 정원문화의 오늘과 내일 심포지엄 이모저모

-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고양꽃전시관 2층 플라워컨퍼런스룸
-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 일시: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 주최: 국립농업과학원,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그림 6] 농촌의 맛을 살린 '농촌정원 조성방안' 심포지엄 이모저모

정원문화의 꽃을 피울 주체는 바로 '우리 모두'이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로 정원이라는 것이 사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유와 여가, 치유, 힐 링,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산림청은 지난 2013년 400여만 명이 찾은 순천국 제정원박람회장의 정원을 '국가정원 1호 지정'하여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구축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작년에 처 음으로 선보인 대한민국 최고 정원 디자인을 꿈는 코리아가든 쇼를 문화 활동과 이어지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국민들에게 주 목을 끄는 방향을 모색하고, 꽃과 나무상당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과정 속에서 정원 전문가들과 정원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어 정원문 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좋다. 아쉬운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림 7] 2015 뜨거웠던 정원문화를 보내며 고양꽃전시관에서

점이 있다면 다양한 행사들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가든쇼도 영국의 웰시플라워쇼나 프랑스의 쇼모와 같이 문화로서 쉽게 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장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

서울시는 올해 가을 10월 10일에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그리고 (사)한국조경사회가 정원 학술심 포지엄, 조경박람회를 준비한다고 하니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풍성한 프로그램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매년 문화재청에서는 궁궐 후원에 위치한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달빛기행, 야간개방, 정자에 앉아 여유롭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공 지하는 프로그램도 주목해야 할 정원문화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 정원 문화의 꽃을 피우고 향유하는 주체는 바로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정원으로의 여행 5



영국 Chelmsford에 있는 개인 정원의 모습. □ 이 정원의 주인인 할머니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정원을 가꾸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Police라고 써진 램프가 한쪽에 배치되어 있다



클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정원의 스타일 II

(Domestic garden - 베란다 정원, 주택정원 등 가정의 정원)

사적인 개인의 공간 안에 꾸미는 정원은 취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주변의 건축물의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을 장식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한다.

주택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 정원과 같이 가정용의 개인 정원은 사용자에게 취향에 맞게 여러가지 디자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정원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 것 보다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정원이 선호되고 있다.

1. 가족의 구성원을 생각하자.

정원을 즐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자. 연령대 별로 좋아하는 식물이나 색깔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가 다르다. 남성과 여성만 하더라도 정원을 꾸미는 스타일이 확실히 틀리다. 남성들은 형태가 뚜렷하거나 구조물들이 들어있는 정원 혹은 나무들이 큼직하게 자리잡은 정원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아기자기한 꽃이 많고 색깔이 화려한 정원을 선호한다. 또한 정원을 관리할 때에도 신체적인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쪼그려 앉아 잡초를 제거하거나 꽃이나 화분관리에 용이하고 남성들은 전기 전정과 같은 일들이 하기가 쉽다. 따라서 누가 정원을 관리할 것인지, 혹은 누가 정원을 꾸밀 것인지를 정하고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보족한 잎이나 독이 있는 식물은 피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이비의 경우에도 접촉성 알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해야 한다. 차라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우는 정원을 Edible garden(에디블 가든)이라고 부른다.



노 부부가 가꾸는 정원. 정원 한쪽으로 덩굴식물인 아이비를 올려 만든 퍼골라가 있다. 통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또 하나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2. 공간을 먼저 크게 나누어 보자.

작은 공간일수록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 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넣으려고 한다면 좁은 곳은 더 좁아보이기 마련이다. 꼭 넣고 싶은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원하게 보이게 한다고 벽쪽으로만 식물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식물로 벽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공간을 쪼개어 각각의 공간이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재미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4. 화분도 장식의 효과를 준다.

각각의 식물들이 아름답게 혹은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모양끼리 심어주는 것 보다는 높낮이를 줘서 리듬감을 살려 주고 화분을 이용하여 식물을 심은 뒤 알맞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화분을 이용하면 거울에 밖에서 자라기 힘든 식물들을 잠시 실내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3. 정원 또 다른 주인·소품들

디즈니 만화 영화 중 '토이 스토리'라는 작품을 보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을 볼 수 있다. 아마 어린시절 그런 상상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개인 주택 정원을 가보면 정원에 살고 있는 작은 난쟁이나 요정들의 모습을 한 소품들을 가져다 놓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정원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 일수록 정원 안 상상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America West II

엘로우 스톤 국립공원



미국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 1호이기때문일 것이다.

위낙 특이하고 괴상한 열을 뿜어내면서 튀어 오르는 자연 분화구,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간헐천이 갖은 모양으로 약 9,000km²에 다양하게 펼쳐있다. 특이한 자연이라 자손 만년 보전하여 물려 주자는 취지에서 국립공원이란 것이 처음 탄생된 것이다. 가족과 미국 유학시절 잠시 다녀온 곳이지만 약 4년전 트래킹 친구와 둘이서 약 7일간 그곳을 살살이 둘러 보기로 하고, 텐트 야영위주로 준비하여 갔다. 로키산맥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서부 쪽에 있다고 보면 된다. Jackson Hall이라는 조그마한 비행장에 내려 자동차를 빌려야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차로 두 시간 가량 운전해 가는데 그 경로에 티톤산이라는 곳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산이다. 약 3,000미터 높이의 웅장한 검고 흰색의 돌로 된 산인데다가 거대한 호수에 산 자체가 비추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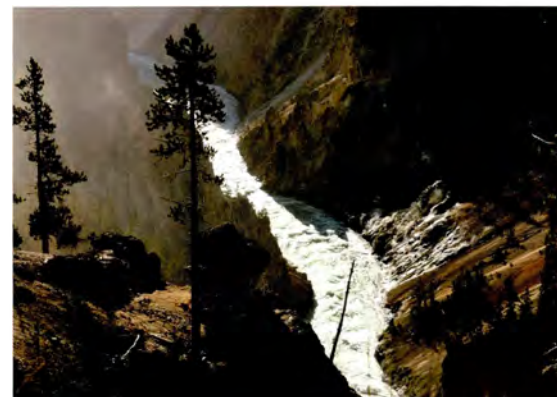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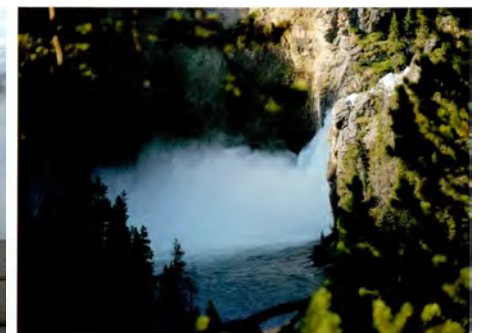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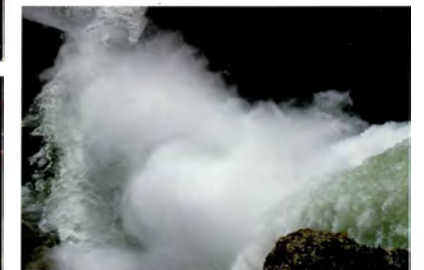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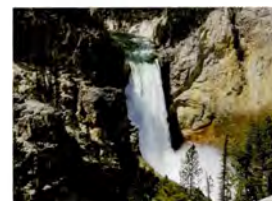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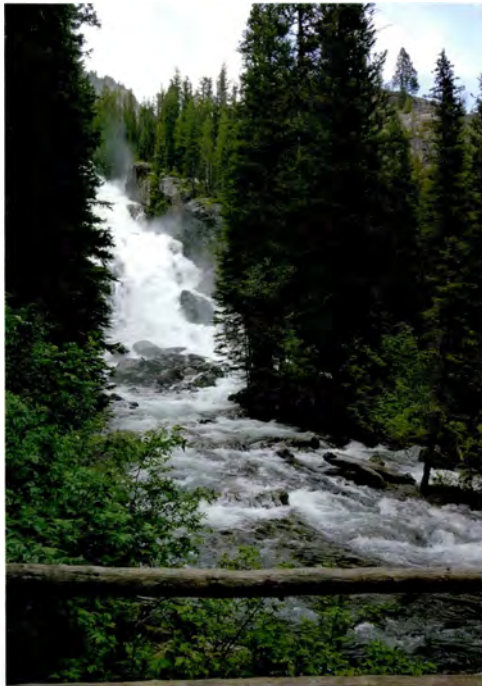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그곳에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유명 간헐지역 위주로 보고오기 때문 그 지역의 다양한 자연모습을 잘 못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트래킹 위주로 준비하여 떠났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모습을 볼 수가 있어 퍽이나 귀한 여정이었다.

자연 그 자체, 다양한 동물들, 특이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풀들의 색채 감, 자연 석화(나무가 돌로 변한 것) 지역에서 보는 특이한 기형색 감들, 정말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정원만큼은 인간이 꾸며 낼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 청정 하늘에 바람이 씻어주는 회오리 바람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푸른 하늘의 구름과 배합된 색채 감, 한 폭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이곳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광경은 폭포이다.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Lower Fall, Upper Fall 두 군데에 가면 낙하하는 물의 굉음, 물살, 이 자체도 대자연이 주는 거대한 자연 정원이 아닌가 싶다. 물이 있어야 꽃, 돌, 다양한 소재로 정원이 갖추어 지는데 내 개인 경험으로는 정원 꾸미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물이다. 어찌 되었든 인공적인 물 보다는 자연적인 물의 요소까지 다양한 형태로 완벽하게 만든 거대한 국립 공원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 독자 여러분께 일생에 한번은 꼭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다.





1,000 종 이상의 Native plant species 가 모여있는 곳

- 약 100 야생화종 *Castilleja linariaetolia*, *Castilleja sulphurea*, *Unaria da/mate*, *Unaria vulgaris*, *Mimulus guttatus*, *Mimulus nanus*, *Pedicularis groenlandica*, *Penstemon cyaneus*, *Penstemon procerus*
- 관목류 : seven conifers (lodgepole pine, whitebark pine, Engelmann spruce, subalpine fir, Douglas-fir, Rocky Mountain juniper, limber pine) and some deciduous species, including quaking aspen and cottonwood.
- Shrubs: common juniper, sagebrush (many species), Rocky Mountain maple.
- Three endemic species (found only in Yellowstone): Ross's bentgrass, Yellowstone sand verbena, Yellowstone sulfur wild buckwheat.



PENSTEMON PROCERUS



Pedicularis groenlandica



Penstemon Blue *P. cyaneus*



Penstemon procerus TeresaPrendusi_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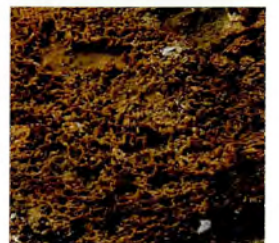
Red_paintbrush *Castilleja miniata* close



mimulus guttatus



Penstemon procerus



마을정원 연재 2



벚꽃마을, 야생화원 송정섭 박사 & 유금명 부부정원사

약 20여년간의 아파트 생활의 종식을 가족과 협의 후, 2002년 대지 구입은 막내동이의 대학 입학과 시기를 맞추어 시작되었다. 봄이면 벚꽃으로 둘러싸는 벚꽃마을에 2000여평의 부지를 8가구가 나누어 구입하였는데 그 중 한 필지를 사서 2004년 주택의 준공을 마치고 2005년부터 정원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일차 정원의 기본 골격을 10주의 대형교목을 이용하여 원예의 기본 배치법인 삼재미(天地人의 3재를 아름답게 배치하는 방식) 배치법에 따라 기본수를 식재하였다. 200년 된 산수유, 대형 소나무, 모과나무, 단풍, 주목 등으로써 이들을 심은 뒤 4계절 어느 때 보더라도 볼거리가 있으며 한 겨울에도 볼거리가 있는 형태를 기초가 잡혔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자연의 점, 선, 면을 응용한 형태미와 경관미를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심었으며 야생화를 중심으로 하자는 몇 가지 규칙도 세웠다. 매년 봄, 가까운 나무시장에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을 평균 20만원 정도씩 구입하는 것도 큰 기쁨이었으며 약 5~6년 계속되니 정원은 어느새 크고 작은 화목류와 야생화 등으로 꽉 차게 되었다.



계절 변화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맛

정원을 조성한지 5년 정도 지나자 정원의 모습은 계절별로 볼거리가 있는 야생화 테마정원으로 착각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4계절 꽃이나 열매, 잎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목과 교목이 조화를 갖추게 되었고, 야생화 연구자로서 전국의 야생화 농가를 다니면서 하나 둘 모아 심은 것들이 4계절 자랄 잡더니 연중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되었고 식물의 생장이나 꽃눈의 분화 및 결실을 통해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식물의 생태와 미적인 정원요소도 빠지지 않게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 풍성한 정원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주면서, 현재는 식물들이 너무 자라서 하나씩 옮겨주거나 간 정정을 하고 묘를 속아주고 이웃들에게 나눔도 하면서 마을의 경관 개선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겨울정원을 위해 상록을 유지하는 나무를 약 30% 정도 배치하였다. 즉 조형 소나무, 반송, 선주목, 눈주목, 줄사철나무, 파라칸사 등을 심어 겨울에도 잎이나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멀꿀나무나 호랑가시나무 같은 남부수종들이 온도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했다. 봄에는 산수유, 생강나무, 목련, 히어리 등이 봄을 알리는 각각의 색과 향을 전하고, 여름철을 알리는 산딸나무, 라일락 등과 과실열매들이 뒤를 잇는다. 그리고 가을엔 단풍나무, 히어리 등 단풍이 곱게 드는 수종들과 유실수(꽃+열매)나 블루베리, 앵두, 보리수 등은 가족은 물론 정원을 찾는 마을사람들은 기본이고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아름답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맡겨 선사한다.

사람을 맞이하는 정원 구성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울타리와 대문도 없이 사람을 맞이하는 집이라는 점이다. 정원입구는 대문 없이 바로 돌계단으로 이어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조경석으로 암석가든의 형태를 유지하여 부처손, 바위술, 차이브, 무늬쑥부쟁이, 미니 옥잠화, 동근잎팽의비름, 기린초 등이 많은 야생화들이 자리잡고 있다. 길을 가다가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제 낯선 사람들이 정원 한 켠에 쫓그리고 앉아 꽃을 보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고 한다. 봄에 가장 일찍 소식을 알리는 복수초, 노루귀, 갯쟁이꽃, 매발톱꽃, 영초 등이 피고 나면 천남성, 원추리, 붓꽃 등이 피며, 이어 나리, 황금달맞이꽃, 자주달개비, 사계코스모스, 참조팝나무 등이 뒤를 잇는다. 여름엔 우뚝동자, 참나리, 옥잠화, 원추리가 아름다움과 향기까지 더해 주며, 가을엔 배꽃채, 구절초, 평의비름, 쑥부쟁이, 용담 등이 정원을 빛내준다. 초화류는 주로 아내가 고른다. 아내가 선호하는 색상은 파스텔톤이라 아무래도 식물도 그런 방향의 색깔로 심게 된다고 한다. 집 뒷면에 있는 후원에는 약간의 습기가 유지되어 습지생태원을 만들었다. 속새, 관중, 청나래고사리, 미나리, 동의나물, 노랑꽃창포 등이 주종을 이루며 특히 5월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설명한다. 정원에는 약 220여종의 식물이 있다. 목본 100여종, 초본 120여종이 모여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가족의 신선채소 급원인 텃밭도 7평 정도 마련하여 엽채류(상추, 들깨, 쑥갓 등), 과채류(호박, 토마토 딸기, 오이 고추) 등을 가꾸고 채소류를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 메리골드 등 허브식물도 적절히 배치하였다. 채소정원은 간편하고 건강한 유기농 채소의 공급을 위해 마련하였다. 여름철 관리는 풀과의 전쟁이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손으로 풀을 뽑아주는 것도 힐링이며 큰 낙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름철 잔디깎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 주고 있다.



야생화들의 생태를 통해 삶의 교훈을 배운다.

정원은 꽃과 나무들이 자라지만 이들의 자람세나 특성을 통해 사람이 배워야 할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쪽동백나무를 보자. 쪽동백나무의 꽃눈은 아무 가지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추운 겨울동안 철저하게 껍질을 벗는 아픔을 겪은(성인식) 가지에만 꽃눈이 형성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는 걸 깨닫는다.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아픔과 고난을 겪고 그

걸 극복해야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역경에 처하면 식물의 본능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식물의 자람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상사화도 봄에 잎이 나와 자라면서 엄마 잎은 자신도 자라지만 엄마가 태아를 기르듯이 꽃눈을 만들어 땅속의 알뿌리에 저장해 차곡차곡 키운다. 꽃눈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엄마 잎은 꽃눈에게 미련 없이 자리를 내주며 사라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꽃대가 맹렬히 나와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꽃들의 삶은 철저한 내리사랑이다.

인간도 삶의 여정에서 종종 성과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식물의 경우도 적당한 라는 단어는 옹납되지 않는다. 산수국의 헛꽃, 개다래의 잎색 변화, 카틀레아의 위장술처럼 제각기 철저한 자기만의 생존전략들을 갖고 살아간다. 벚꽃마을을 총장으로서 커뮤니티 가든도 운영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가드닝에 대해 얘기하면서 “식물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도 공유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꽃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열린 마음들은 접하면서 가슴 뭉클한 스토리도 많다고 한다. 꽃으로 소통하는 공동체적 사랑도 함께 느끼는 마을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꽃을 통해 한 마을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방문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성장하는 공동체로의 발전 모습은 축복이며 식물 속에서 조용히 가르치는 무언의 교사이다.

Gardenin Tip

쪽동백나무 Strax obassia Siebold & Zucc

넓은 잎도 아름답지만 향기까지 그윽한 하얀 꽃, 가을의 단풍잎, 열매 등 볼거리가 좋은 한국 자생식물. 나무의 수피와 전체 모양이 때죽나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꽃이 포도처럼 송이를 이루며 핀다. 잎이 크다 하여 납죽이나무, 머리 기름이 나온다 하여 산아주까리나무로도 불리며 나무껍질은 안식향 성분이 있어 방부제나 향료의 재료로 사용



쪽동백나무의 꽃



쪽동백나무 열매



정원의 수준을 검증한 후의 즐거움

야생화원을 만든 후 정원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2011년 경기정원문화대상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획득하면서 자신감을 가졌다. 시상대에 아내와 함께 올라갔는데 아내는 농학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정원에 대한 진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며 방송통신대 원예학과를 졸업했을 정도다. 따라서 우수상은 정원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온 아내가 받을 상이었다.

정원문화대상을 수상한 덕분에 매년 정원을 오픈하는 가든오픈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년 2회 정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데 그 기간 중 누구든 방문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천원을 내면 된다. 정원주 입장에서는 방문객이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씩 되풀이해야 해서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즐거운 맘으로 임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자가 낸 입장료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며 특별한 곳에 기부금 형태로 사용된다고 있다. 이러한 garden open day를 지역별로 아니면 커뮤니티 개념으로 활성화하려는 바램이 있다.

현재 송박사는 (사)정원문화포럼 회장으로서 지역별 또는 테마별로 정원을 소개하거나 open garden book 제작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쓰는 365일 꽃이야기도 그의 자랑거리다. 외국 출장 중에도 한국의 새벽시간에 맞추어 꽃 이야기를 써 올려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보면 확실히 꽃을 사랑하는 남자가 맞는 것 같다. 현재 이야기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넘었으며 약 5천명이 매일 그의 꽃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원 속에서의 힐링과 사람과의 소통은 이미 offline으로 만든 '송박사의 꽃담(페이스북 그룹)'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다. 약 900여명이 서로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매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꽃을 공부하고 식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꽃담은 매년 갖는 기부정원 만들기(1차 수원 서호초등학교, 2차 홍천 해밀학교)도 하고,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꽃과 정원이 우리 생활문화 속에 정착되도록 회원간 친목도모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무튼 벚꽃마을에서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대문과 담장이 없는 집 정원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지나는 나그네가 정원에 핀 할미꽃 앞에 앉아 10여분 이상 쪼그리고 앉아 눈길을 주며 빠져들 때 보람도 느끼며, 우리 정원사 부부에게는 건강도 지키는 일이라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벚꽃마을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벚꽃마을 방문객 수도 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가드닝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참 보기 좋은 현상이다. 커뮤니티 공동체 마을을 소개하며 한국의 정원문화가 소통과 나눔의 문화로 이어가는 정원 이야기들이 이곳 '벚꽃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 자락에 위치한 숙이정원은 2002년 집터를 마련하고 집을 손수 지으면서 조성 되어진 곳이다. 70여 평의 정원에는 목백일홍, 화살나무, 목련, 수수꽃다리, 보리수, 남천, 인동, 연산홍, 철쭉 등과 말발도리, 빈카, 코스모스, 국화류, 비비추, 옥잠화, 붓꽃, 오아리, 램스이어, 꽃잔디, 샤프타데이지, 금낭화, 매발톱, 수선, 무스카리, 튤립, 우산나물, 우단동자, 애기붓꽃, 할미꽃, 구절초, 이끼용담, 레몬밤, 파인애플민트 등 다양한 품종이 식재 되어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초기의 정원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잔디 정원을 조성하였으나 생각보다 잡초 제거에 대한 어려움으로 식생이 잔디 보다 강한 수종을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정원으로의 시작이라 한다. 몇 해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식물에게 적당한 자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이식이 필요했다고 한다. 넓지 않은 정원에서 식물의 식생에 맞는 위치는 따로 있어서 그 자리를 찾아 주면 꽃을 잘 피우고, 번식률도 좋아진다고 한다.



휴일을 즐기는 힐링 공간

직장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평일에는 관리가 어렵고, 관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로 하면서 일주일의 피로를 건강한 노동으로 해소한다고 한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서 똑 같은 일상 속에 세상의 변화를 읽어 주는 좋은 동화 같은 정원이라 한다. 비료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름을 2년에 한 번 밑거름으로 주고 겨울이 되기 전에 흙 위 쌀겨를 덮어 보온과 함께 봄에 땅을 덮어 주면서 거름으로도 사용한다. 방제는 벌레가 잘 생기는 과일수와 붉은 장미 등을 제거해 약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정원의 요술램프

정원의 청경물이나 조형물 등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주인공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남편이 가든게이트, 흔들의자, 문패, 안내판, 우체통, 파티션, 울타리 등 목공을 직접 해서 선물해 준다고 한다. 가끔 시중에서 구입하기 힘든 수종을 구해서 부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한다.

나누고 싶은 정원

주인장은 특이한 꽃에 대한 욕심이 많다. 길가다가 꽃집에 눈에 띄는 꽃이 있으면 방앗간처럼 들러서 꽃 구입을 하고, 식재를 공부하고 간단한 환경적 실험도 해 본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세한 번식을 나타내는 것들은 포트 작업을 하거나 종자를 채취해서 대문 앞 나눔의 선반 위에 올려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런 이유인지 동네 어귀에서부터 길 가장자리로 옥잠화와 사스타테이지가 군락을 이루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방문하는 이들이 워낙 많아서 집에 사람이 있는 없든 대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한다. 문수산 등산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포토존도 되고, 산책 나오는 이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동네에서는 꽃 나눔이, 꽃 전도사라 불린다고 한다

꽃을 좋아하게 된 것은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입니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던

것 같아요. 식물은 계절을 알게 하고, 그 계절에 맞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타사 튜더처럼 삶의 여유를 꽃 피우는

동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자로 만드는 - 벽 장식 가드닝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현대
디자인협회) 회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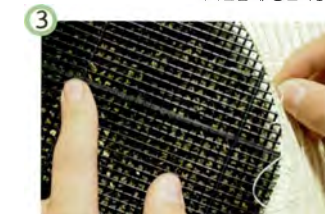
계절이 바뀌면서 하계 되는 정립정원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모자는 잘 보관을 한다고 해도 모양이 틀어지거나 오염이 되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모자를 이용해 벽에 걸어 감상할 수 있는 가드닝으로 시원함을 즐겨보자.



모자의 안쪽 구멍에 맞게 화분망을 자른다.



모자의 안쪽으로 이끼를 채워 넣는다.



화분망을 겹에 대고 모자와 잘 이어준다.



모자 바깥으로 밀도니아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내어준다.



구멍 속으로 이끼를 잘 벌려서 밀도니아를 식재한다.



밀도니아 꽃대가 모자의 곡선에 맞게 철사나 뿔꼬리로 고정시킨다.



Material





하반기 단기 정원교육소개 Short Garden Design Course

영국 디자인학교의 정보를 본 후 가든인 독자에게 받은 질문은 짧은 기간 학습과 수료증을 얻는 기회는 없는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번 7월 가든인 정보에는 여름휴가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일한 해의 정원교육 코스기회를 얻거나 여행중 전문가의 코치를 받으며 정원에 관하여 공부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기본적인 언어 소통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학생, 직업군에 알맞게 추천하고픈 코스이다. 그리고 더 짧은 기간동안 단기 정원교육 코스는 각 지역마다 찾아보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휴가와 전문적 견문도 높이는 2015년 하반기 교육을 가든인 독자에게 기대한다.

KLC Garden design course in Hapton Court

KLC School of Design, 503 Design Centre East, Chelsea Harbour, London SW10 0XF



Garden Design : the essentials / 2015, 9-7-11 (5일간)

교육비용 : 825 파운드

교육내용 Principles of Garden Design Measuring the Site and Analysing the Existing Garden

· Planning the Layout of the Garden and Garden Masterplans

· Fundamentals of Planting

· Visit to Wisley RHS Gardens to draw inspiration for your designs

· Overview of Garden Styles

· Hard Landscaping in the Garden

· Working to a Client Brief

· Small Garden Project

· Small Planting Project

· Thinking of a Career in Garden Design?

LCDG / London College of Garden Design / RHS Wisley Course

The London College of Garden Design
Telephone +44(0)1483 762955 email: info@lcgd.org.uk



2015년 하반기 코스 과정으로 London College of Garden Design 은 RHS(왕립 원예 학회), Wisley 에서 강의 하는 코스 참고.

RHS Garden Wisley Course and Workshop timetable for 2015 하반기 코스

Date	Title
27th June 2015	Design Solutions: Trees
27th June 2015	Design Solutions: Roses
2nd July 2015	Designing Planting Plans - Two day studio course
18th July 2015	Designing the Cutting Garden
8th August 2015	Design Solutions: Tropical Planting
8th August 2015	Design Solutions: Planting Design with Annuals
20th August 2015	Designing for Colour
10th October 2015	Designing for a Large Garden - Two day studio course
7th November 2015	Designing for a Large Garden - Two day studio course

GARDEN & BOOK

저자 : 문현주

유럽의 주택 정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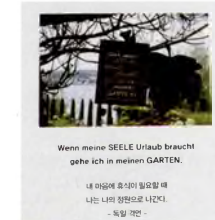
제1권은 정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정원 6곳, 스위스 정원 4곳 프랑스 정원 2곳 그리고 쇼 가든 3곳을 정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들려준다. 조경을 전공하고 정원 디자이너 및 정원 교육자로 활동 중인 저자가 유럽의 주택 정원을 답사하여 정원 주인과 나는 정원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4월, 나는 유럽의 주택 정원을 둘러보러갔다.

사진을 찍고 정원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마음에 와 닿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었다.

9월, 그 곳으로 갔다.

지난 여행에 정원 주인과 이야기하느라 사진을 충분히 찍지 못 해서 아들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건축을 공부했기에 어느 정도 사진은 찍지만 보는 눈이 달랐다. 떠나기 전, 주변에 있는 몇몇 주택에서 정원찍는 연습을 했다.



이 책은 읽지 말고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며 훑어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집 저집을 정원을 걸으며 돌아 다녔듯이 독자들이 나와 함께 산책하듯이 좋겠으면 좋겠다. 그들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뒤쨌는 미소를 지어요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아는 만큼 보인다.' 하였지만 정원의 아름다움은 보고 느끼는 만큼 알게 되는 것 같다.

에필로그

Open garden 오픈정원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꾸민 나의 정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정원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 (본 아니 라 내 정원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정원축제로 오픈가든(open garden), 가든쇼(garden Show)가 있다. 이 두 축제는 모두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이려면 오픈 가든은 생활 속에 있는 정원이며 가든쇼는 박물관적인 성격의 정원이다.

오픈 가든은 정원 마니아들에게 개인의 정원을 개방하여 정원이 조성된 과정, 정원수 및 화훼류에 대한 생육과정 등 그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원가꾸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이다.... (본문 중)

임구여 붉은 열매가 달려 있는 해당화 담뽀 사이에 해바라기 장식이 꽃혀 있다. 작은 조형물이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슬며시 미소 짓게 한다. 주차를 하고 서성이니, 이곳이 우리들이 찾는 집이 맞다며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캄버(Kamber) 씨가 나온다.

그를 따라 정원으로 들어서는데 등걸에 토끼귀를 만든 회양목 한 그루가 내 키만 하다. 회양목의 느린 성장 속도를 감안 하면 일단 꽤 오래된 정원임을 암시한다.

문현주 조경 설계가, 정원 디자이너

저자 문현주는 현재 양평 농원에서 '가든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 상, 아름다운 경관을 탐구하기 위하여 여행을 많이 한다. 최근엔 프랑스, 독일, 호주, 영국 등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블로그(http://blog.naver.com/gdschool)에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부전공 한 것이 일생의 직업이 되었다. 졸업 후, 9년 반의 독일 유학 생활은 그들의 정원에 대해 자연스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귀국 후, 조경 설계 사무소 '오브제 프렌'을 운영 하고, 7-8년 전부터 정원 디자인을 하고 있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산구대 등 조경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서울여대에서 정원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일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6년 영국 볼링턴 대학의 던컨 헤더(Duncan Heather) 교수의 '가든 디자인 코스(Oxford College of Garden Design)'를 들었다. 또한, 정원의 회화적 표현이라는 고민으로 퍼스에 있는 'Kidoago Art School'에서 그림 수업을 받았다. 정원수의 사계절 변화와 생육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6년 전 양평으로 이사 왔으며 작은 농원에서 정원 일을 즐기고 있다.

A detailed map of the Yangje IC area. The map shows the Yangje IC (양재 IC) at the center, with major roads like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and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running through it. Key landmarks include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and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Other landmarks include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and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The map also shows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and the Yangseong Expressway (양성고속도로).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드림 오렌지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